

리아호나

중독과, 중독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16, 22쪽

우리를 하늘에 연결해 주는 것, 12쪽

성약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로 이어 주는가, 26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시드니의 아름다운 천연 항구 근처에 세워진 집회소에서 네 그룹으로 이루어진 총 309명의 후기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본다. 이들 각 그룹은 영어와 통가어, 스페인어, 표준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다. 전 세계 문화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시드니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흔한 일이다.

184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교회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당시 17세의 영국인 윌리엄 제임스 베렛이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첫 개종자인 로버트 보캠프에게 침례를 주었고, 보캠프는 후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초기 성도들은 신문사로부터 가혹한 공격을 받았으며 많은 회원이 미국 유타주로 이주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후기 성도들은 곳곳이 어려움을 이겨 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의 교회도 번창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151,000명 이상의 후기 성도들이 있다. 이들은 산불,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 때마다 응급 구호물자를 공급한 일로 여러 신문사의 칭송을 받아 왔다.

- 1851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첫 선교부가 생겼고, 현재는 6개의 선교부가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번째 예배당은 1904년에 브리즈번에 세워졌다.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성전은 1984년에 헌납되었고, 애들레이드 성전(2000), 멜버른 성전(2000), 퍼스 성전(2001), 브리즈번 성전(2003)이 뒤이어 헌납되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중독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찾다

차켈 워들레이

22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숨기고픈 인생의 시험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나와 우리 가족은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는 마약 중독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오빠를 지켜보며 수년간 그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16쪽에는 중독에 대한 심리학자의 설명과 함께 중독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방법 및 그것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실려 있다. 그 뒤에는 오빠의 중독이 지난 십여 년간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극복하고 완벽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서 서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모사야서 18:8), 우리가 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진심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방법을 보여 주실 수 있다. 나는 선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차켈 워들레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12



중독이라는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

케빈 테리엇

16

성역의 원리: 성역을 베풀기 위해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6



- 5 **전 세계의 선교사 훈련원**

13곳의 선교사 훈련원에 대한 다음의 사실들을 알고 있는가?

- 6 **신앙의 초상: 셸리 엘굿—미국 켄터키주**

나의 발전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일으키셨고 더욱 강해지게 하셨다.

- 8 **성역의 원리: 성역을 베풀기 위해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성역은 타인을 고양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때 그들을 고양할 수 있다.

- 12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기도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 16 **중독이라는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

케빈 테리엇
중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그런 후에야야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중독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 22 **중독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찾다**

차켈 워들레이
오빠의 중독이 불러온 해로운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과 희망을 찾았다.

- 26 **성약에 속하는 기적**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자애를 베풀므로써, 우리는 성약의 길에서 발전해 나가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성전으로 가는 10시간의 여정,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낌,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한다는 영감을 따른 의사, 선지자가 보낸 편지

- 38 **자립에서 오는 축복: 십일조에 대한 간증에서 성전 성약까지**

마이클 알 모리스

- 40 **십 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회개를 가르치는 10가지 비결**

짧은 기사

표지
상실 — 가족 사진에서 빠져 있는 아버지,
미리얼 와이스먼,
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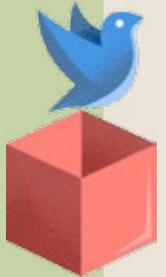


섹션

청년 성인

42

청년 성인 시기는 지역 사회,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다.



청소년

50

선교사로 봉사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알아본다.



친구들

이번 달 친구들에는 어린이들이 침례를 배우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들이 실려 있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내려받거나 듣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

liahona@ldschurch.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2019년 2월 호, 제56권, 제2호
리아호나 1860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라셀 벨라드, 제프리 알

울렌드, 다이터 예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릿 더블유 쿡,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펄코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켈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윌슨,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랜디 디 펄코,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고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래리 에스 캐처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로이 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랜시스카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톤, 로리 풀러, 개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쟈슨, 샬러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머리아 윗슨

편집 인턴: 알렉스 휴지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타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 피이 피 앤드루스, 멘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톱플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머리아 엠 스미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에더, 줄리 버넷, 토머스 지

코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님슨,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5호, 제56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세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

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지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온라인 전용 기사



하루 24시간으로는 시간이 모자라는가? 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법을 배워 보자

헤더 제이 존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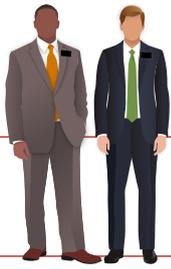
로리 풀러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ebruary 2019 Vol. 43 No. 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 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전 세계의 선교사 훈련원

13
선교사 훈련원 (MTC) 수

67,007
전임 선교사의 수

407
선교부 수

58
MTC에서 가르치는 언어의 수

20,515

가장 큰 MTC인 미국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작년 동안 훈련 받은 선교사의 수



376

가장 작은 MTC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작년 동안 훈련 받은 선교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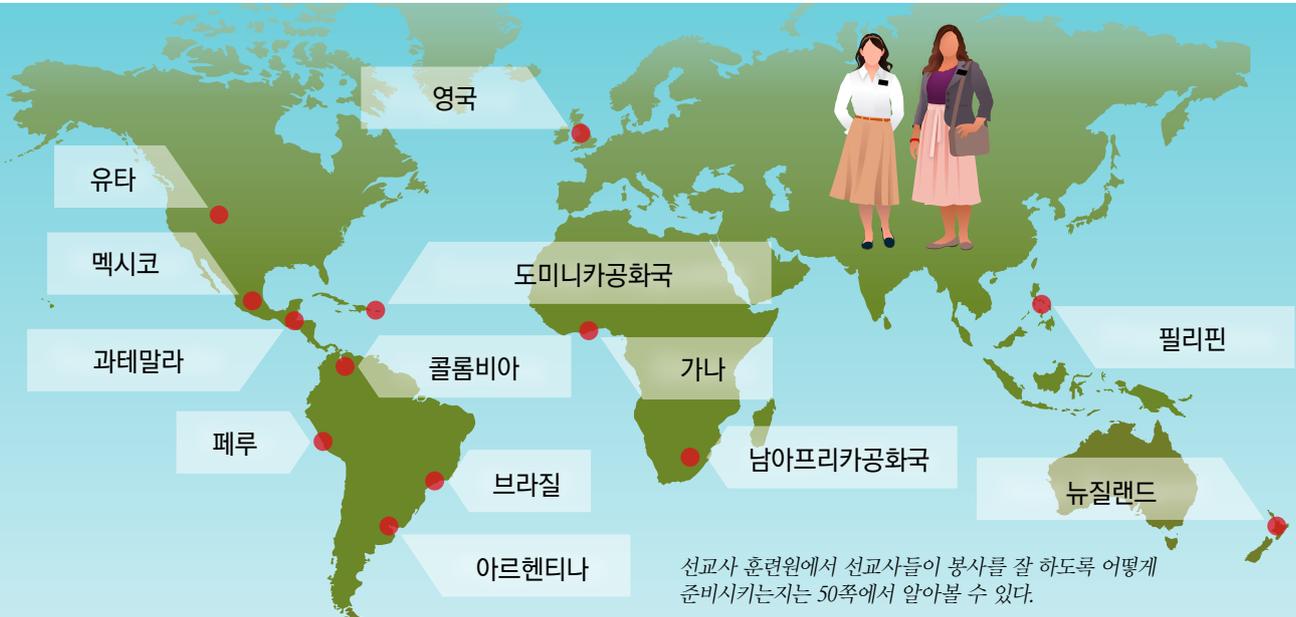
부지 및 건물 규모가 가장 큰 MTC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으며, 약 36만 제곱미터의 면적위에 **88**개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교사 훈련원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7**층 짜리 건물이다.

3주: 선교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 MTC에서 머무는 기간

6~9주: 선교사가 외국어를 배울 경우 MTC에서 머무는 기간





셀리 엘굿

미국 켄터키주



셀리는 인생에서 내린 여러 선택 때문에 교회에서 수년간 멀어져 있었다. 교회 친구들의 도움으로, 셀리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고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될 힘과 신앙을 찾았다.

코디 벨, 사진 작가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수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 목표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 왔음을 아이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구주께로 향하면 그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한다. 신앙을 갖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그분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음을 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나를 일으키셨고 더욱 강해지게 하셨다.

더 알아보기

lds.org/go/021902에서 우리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Lds.org/go/021903](https://lds.org/go/021903)에서, 교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제 막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역을 배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워 보자.

lds.org/go/18에서 신앙의 초상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성역을 베풀기 위해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성역은 타인을 고향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겪는 일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기꺼이 동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향할 수 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처럼 되도록 돕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가 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에 머무른다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 혼자 힘만으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길에 머무르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어떻게
도울지 아시기 위해 만물 아래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공감 능력을 얻으신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다.(엘마서 7:11~12; 교리와 성약 122:8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타인에게 공감을 보이기를 바라신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성약을 맺었다.(모사이야 18:9) 우리 각자도 난관에 부딪치게 되지만,
경전 곳곳에서 우리는 타인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히브리서 12:12~13; 또한 이사야 35:3~4; 교리와 성약
81:5~6 참조)



남의 손을 잡고, 돕고,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구주께서 그들을 돌이켜 성역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래 그 길에 머물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2:13 참조)

공감이란 무엇인가?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상태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

성역을 베풀고,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려 노력할 때 공감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다음은 종종 예배당 뒷줄에 혼자 앉아 있던, 수줍음을

잘 타는 후기 성도 형제의 이야기이다. 장로 정원회의 한 회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감독은 그 장로의 가족을 위로하는 신권 축복을 주었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선의로 유가족을 방문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날 늦게 이 수줍음 많은 형제가 유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른 뒤, 고인의 아내가 나오자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신발을 닦아 드리려고 왔습니다.” 두어 시간 만에 그는 가족들이 장례식에 신고 갈 신발을 모두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다. 다음 일요일에 유가족들은 맨 뒷줄에 앉은 그 수줍음 많은 남자 옆에 앉았다.

그는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성역을 베푸는 덕에 유가족과 그 남자 모두가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성역을 베푸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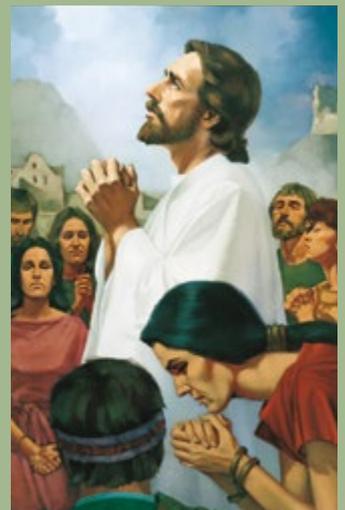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현재 상태로는 그들이 당신이 가르치셔야 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아셨다. 주님은 백성들이 또한 당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셨다.

복음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시던 주님은, 그들의 현세적인 필요 사항에 따라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병자와 절름발이, 앞 못 보는 자와 불구가 된 자를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셨다.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며 보이신 공감에 대한 모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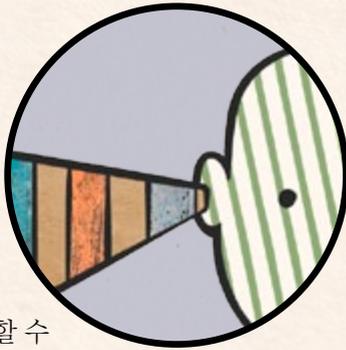
나는 어떻게 공감 능력을 발전시킬까?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축복으로 받은 것 같다. 이와 달리 공감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지난 30년 동안 공감 능력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이 늘어났다.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주제에 접근했으나 그들 대부분은 공감 능력이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²

우리는 공감하는 은사를 얻도록 기도할 수 있다. 공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감의 기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³ 이런 요소들은 종종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것을 인식하면 공감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1. 이해한다

공감하려면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고, 당사자와 협의하고, 다른 사람과 협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이다. 성역의 원리에 관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6쪽.
-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리아호나*, 2018년 9월호, 6쪽.
-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얻음”, *리아호나*, 2018년 10월호, 6쪽.

남을 이해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들 각자의 개인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 우리가 실직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실직자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대신에 우리 생각에 근거해서 대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 상상한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 또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성신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⁴



타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볼 때, 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마태복음 7:1 참조) 어떻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판단하다 보면, 그 상황이 초래하는 고통을 소홀히 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대응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느냐를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했음을 전달할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때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때로 그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마음을 고양하고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혹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혹은 “속상하셨겠어요.” 등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거짓으로 꾸민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적절하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과 불안을 털어놓아 여러분도 다분히 연약한 존재임을 보임으로써 둘 사이에 소중한 연대감을 만들 수도 있다.



행하도록 권유하라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해 본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여러분의 대응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

“성역의 원리” 기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며, 성역 방문 시 메시지가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성역 대상자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주

1. See W. Ickes, *Empathic Accuracy* (1997); and M.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2000).
2. See, for example, Emily Teding van Berkhout and John M. Malouff, “The Efficacy of Empathy Training: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16), 63(1), 32–41.
3. See, for example, Brené Brown, *I Thought It Was Just Me (But It Isn't)* (2008); Theresa Wiseman, “A Concept Analysis of Empath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6), 23, 1162–67; and Ed Neukrug and others, “Creative and Novel Approaches to Empathy: a Neo-Rogerian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5(1) (Jan. 2013), 29–42.
4. 헨리 비 아이어링, “보혜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8쪽.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휴

대 전화로 미국 뉴저지주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면,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눈에 보이는 연결선도 없이 어떻게 제가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된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부탁드리건대, 제게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그것도 다른 언어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동시에 그것을 듣고 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휴대 전화처럼 기도는 하늘에 가 닿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누가복음 3:21)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하늘을 열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오늘날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구하다(as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인 *aiteo*[아이테오]를 어원으로 하며, 부탁뿐만 아니라 애원, 간청, 탄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애원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때에야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중언부언하는 말로 타성에 젖은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7; 제3니파이스 13:7 참조) 경전 구절을 읽거나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개인 기도를 준비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서둘러 기도를 해치우거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없이 할 때도 있고,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칠혹같이 어두울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무릎이여, 꿇으라, 입이여,

열릴지어다, 혀야,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감사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입니다. ... 그것은 영과 육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in *Journal of Discourses*, 3:207)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는 우리에게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 불안과 우울,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같은 어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느꼈던 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도록 뭔가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기도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순간은 참으로 천국에서 보내는 순간이며, 비록 응답이 항상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더라도, 천국에서 보내는 그 순간은 필멸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항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이사야 5:20)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곧 강력한 기도는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영적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그 즉시 완전한 이해력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평화와 위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구주께서 기도하신 방법을 공부해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가복음 1:35)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셨으며, 또한 기도를 드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피합니까? 잠시 세상을 뒤로하고 하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까?

누가는 또한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누가복음 5:16)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마태는 구속주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겸손함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태복음 26:39)

그분이 “얼굴을 땅에 대셨다(fell on his face)”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어에서 “fell[땅에 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리는 자세로 몸을 낮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pipto*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는 분은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시며 강력한 존재이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고린도후서 1:3) 그런 존재 앞에서 저는 가벼운 태도를 보일 수가 없으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어려움을 극복할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
천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음과 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참으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려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누가복음 22:44)

여러분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왜 나에게?” 하는 생각에 빠져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더욱 간절히”라는 표현은 “쉽 없이, 열렬히”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련의 순간에 쉽 없이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뇌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고뇌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머리는 부지런히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주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5:36)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교리와 성약 8:2) 정말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려움을 이겨 낼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강력한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편 55:17) 히브리어로 기도하다(*pray*)라는 단어에는 “말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존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한 자비로 몇 번이고 거듭해서 저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

2017년 11월 28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에서 발췌함.

중독이라는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

중독을 극복하는 핵심 단계의 하나는 바로 중독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께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만 한다.

케빈 테리엇 박사
LDS 가족 서비스

누 군가가 중독에 시달릴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곳곳에는 스스로를 인질로 삼게 하는 물질 또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개인의 결연한 노력, 중독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유를 향한 자신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중독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살아온 38년 동안, 나는 중독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진화가 계속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독 과학 연구자들은 난제에 봉착하면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빛과 지식이 지속해서 더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중독을 이해하라

중독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사투인지 알지만, 첫 번째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중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소개하겠다.

- 중독은 단순한 노출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의존성으로 발전한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중독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든지, 자신의 선택의지를 어느 정도 행사하여 중독 행위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다.

- 누군가를 중독자로 치부하는 행위는 그들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중독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회복 중”에 있다는 표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난 영원히 죄에 갇혀 있어”보다는 “난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그분과 그분의 속죄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 모든 중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유전, 뇌 화학 등) 생물학적 요인, (자존감, 성격 특성,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부모, 친구, 문화 등) 사회적 요인, (개인 및 가족의 종교적 관습 등) 영적 요인. 당사자마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은 다르며, 어떤 요소가 더 강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려면, 요인마다 당사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영적 요인

중독의 길에 들어섰다는 징후

다음은 어떤 개인이 중독에 이르는 습관을 갖게 되고, 강박과 중독이 차례로 뒤따르는 길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표이다.



강박 관념: 해로운 물질에 대한 의존과 유해한 행위가 점차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건강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



갈망 증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로운 것들을 더 많이 원한다.



은밀한 행동: 타인에게 자신의 결정과 행위를 알리는 것을 점점 꺼린다.



부인: 의존성의 증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말을 믿는다.



금단 증세: 해로운 물질을 취하지 못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행복감이 감소한다.



회귀: 해로운 물질이나 유해한 행위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물질 또는 행위로 되돌아간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당사자는 중독 진행 선상에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정확히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의 길에 들어섰는지 궁금하다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치료법 찾기

- 변화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가족과 친구가 도움은 되겠지만, 그들은 타인의 선택의지에 개입할 수 없다. 당사자에게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어떤 치료법도 성공할 수 없다.
- 회복에 이르는 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고유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더 강하고 약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단일한 치료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는 개인적인 연구, 전문가 상담, 해결책을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결심에 있다.
- 해결되지 않은 중독은 당사자의 삶을 황폐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랑과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이들도 똑같이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때 그분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무한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분과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점을 마련하신다. 중독에서 벗어난 거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개인적인 승리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

가족과 친구를 위해

중독은 도덕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복합적인 시련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시도해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다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일부 있다. 다음 제언은 완벽한 목록도 아닐 뿐더러 특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이나, 각 항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약간의 수고로 예방하는 것이 막대한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 유비무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느냐에 관계 없이 소신 있게 말하라. 종종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무슨 이야기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이다. 용기와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한 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입을 열고 말하라.
- 바람직한 가족과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다. 또, 나쁜 선택은 지양하게 한다.
-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 할 때 여러분은 다음 구절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교리와 성약 121:43)

- 훌륭한 응원단원이 되어 준다. 응원단원은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패배를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는다. 응원단원은 자신의 역할이 응원을 하고 힘을 북돋우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임을 안다. 시합에서 자기 팀이 승리하길 바라는 감정적인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쾌해하지는 않는다.
-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걱정하는 누군가를 돕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9:8) 중독과 그 치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라.



온라인 자료

교회는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들을 운영한다.

- addictionrecovery.lds.org
- overcomingpornography.org

이 외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중독 극복과 관련된 국립 기관 및 웹사이트가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에는 ncadd.org(마약 및 알코올 중독 관련) 및 fightthenewdrug.org(외설물 관련)가 이에 해당한다.

회복 중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은 교회 지도자들은 counselingresources.lds.org를 참고할 수 있다.

중독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찾다

차켈 워들레이
교회 잡지

중독은 중독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뒤흔드는 그칠 줄 모르는 허리케인이다.

오빠가 헤로인을 과다 복용했던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모든 게 생생하다. 오빠가 바닥에 쓰러지며 났던 쿵, 하는 소리부터 부모님의 비명, 공포, 혼란, 끝이 안 보이는 중독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망감까지 말이다.

오빠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사실 나도 많이 놀랐다. 주위는 온통 혼돈뿐이었으나, 다행히 알 수 없는 힘이 내면에서 일어나서 오빠를 진정시키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 잣빛을 띤 뺨뺨해진 오빠의 손을 붙잡고서 천천히 말을 걸자 오빠는 흐릿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오빠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 시의적절한 평온은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보내 주신 것이었음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오빠가 다소 진정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간 후에야 불현듯 지금 일어난 일의 실체가 파악되기 시작했다. 잠시간 나를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자 나는 그대로 슬픔에 주저앉고 말았다. 억장이 무너졌다.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침대에 웅크리고 누운 채



숨을 헐떡였다. 아무리 흐느껴 울어도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런 거지? 오빠 절대 이겨 낼 수 없을 거야! 더는 못 하겠어!'

슬픔으로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돌풍에 휩쓸려 날아가 차갑고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중독자와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처하게 되는, 내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멈추지 않는 허리케인

사랑하는 누군가가 중독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다. 중독은 방어적인 태도와 수치심,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짓말, 은밀함, 사기, 배신을 낳는다. 이 모두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수도 없이 떠오르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족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중독에 시달리는 모든 가족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가족은 오빠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두고 의견 다툼까지 겪어야 했다. 부모님의 관심이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될 때면, 나와 언니들 사이에는 오빠에게 무언가 "자율권을 주는 것"에 대해 길로로는 찬성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의견이 나오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도 있었다. 때로는 우리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중독은 곧 닥쳐올 폭풍과도 같다. 불확실성의 구름과 근심이 머리 위에 계속 드리운 상태로 폭풍을 맞게 되는 것이다. 늘 벼랑 끝에 매달려서 곧 닥쳐올 벼락을 주시하지만, 벼락이 칠 때마다 여지없이 허점을 찔리면서 절대적인 공포로 떨어진다. 언제나 그렇다. 잔인하게 한없이

계속된다.

마약을 과다 복용하기 전까지 오빠는 2년 동안 약을 끊고 살았다. 10년 이상을 중독이 낳은 잔혹한 결과와 싸우는 오빠를 지켜본 뒤 마침내 우리는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약에 다시금 노출된 그 순간, 오빠가 지난 2년 간 일궈 내려 노력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했던 자유를 본 것도 잠시, 우리는 격렬하고 난잡하며 헤어날 수 없는 듯한 중독의 허리케인, 중독자를 뒤흔들며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이리저리 내던져 버리는 폭풍 속으로 다시금 빨려 들어갔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중독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처음에는 시험해 본다는 사소한 생각에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에서 의존으로, 의존에서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점차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습관에 매이는 것은 느끼기도 힘들 만큼 작은 것이나, 결국은 그 습관이 떼어 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¹

나와 가족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중독에 대해 잊어 버리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중독이 시작될 때 오빠는 사실 가족 대신 중독을 택한 것이 아니며, 그는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기 힘든 유혹에 매일 직면한다는 점이다.

나락에서도 구주를 찾을 수 있다

침대에 몸을 던진 나는 익숙하게 겪어 왔던 혼란이 다시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걸 느꼈다. 나는 희망을 잃고 패배감에 몸을 떨었다. 고통이 밀려왔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 고통을 없애 주시고 오빠가 이 시련을 다시 한 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긴 했지만, 오빠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본 후 나는 내가 절망의 어두운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나는 빠져나왔다.

오빠의 중독 때문이든 내게 닥친 다른 시련 때문이든 간에,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 스스로를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일어나 내 배를 수습해서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구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놀라운 점이다. 구주께 온전히 의지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은 대개 삶이 순조롭고 남 부러울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데, 그러고 나면 전혀 예기치 않게 추락하여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친다! 무자비한 밑바닥에서 나는 고개를 떨군다. 추락은 예기치 않을 때, 순식간에, 고통스럽게 일어난다. 하지만 다양한 시련을 겪으며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놀랍게도 그 밑바닥 역시 멋진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그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 구주의 빛 덕분이었다. 혹여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발견할 때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길 바란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²

나는 나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권능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오빠 때문에 슬픔에 빠질 때에도, 그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구주만은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한, 그분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빠의 중독 역시 이해하신다는 것도. 갑작스럽고 무섭게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증오하는 만큼이나 나는 내가 홀로 설 힘이 없는 순간 일어설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와주셨던 것에 감사드린다. 주님께서서는 오빠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오빠를 판단하고 탓하는 대신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오빠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에 공감해 주도록, 오빠의 선택 때문에 내가 셀 수 없이 상처를 받더라도 오빠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중독을 겪는 이들을 도우며

오빠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오빠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하고 다정다감하다. 오빠는 충명하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며, 사랑받는 삼촌이자 훌륭한 친구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다. 오빠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릇된 몇몇 선택으로 사탄에게, 또 중독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의 가르침처럼 “작은 불순종 행위나 의로움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으로도, 우리는 경고받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³ 오빠는 그릇된 선택을 한 게 맞지만, 오빠를 비롯해 중독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지원과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가족은 오빠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말도 못한 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왔다. 우리는 수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 낸 수치심을 견뎌야 했다. 중독이라는 주제는 금기였고, 그에 대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약물 중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족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리라 여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도 무서웠다. 부모님은 오빠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셨고, 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친구들에게

숨겼으며, 오빠에 대한 모든 질문을 서로 피했다.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예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이제 나는 오빠의 중독을 다르게 직시한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직시하는 것! 수년간 나는 그 문제에 등을 돌리고 남들에게 철저히 숨겼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당당히 맞선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구하고 도우려 노력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중독이 수많은 가족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랑하는 이들이건 고통받는 당사자이건 그 문제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판단은 삼가고, 더 많이 도우며 동정심과 이해심, 사랑을 보여야만 한다. 누구도 홀로 고통받아서 안 된다.

폭풍 속에서 평화를 얻다

오빠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수년간 기도해 왔지만, 나는 오빠의 선택의지를 간섭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배우게 되었다. 중독에 속박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얼마간의 선택의지는 존재하기에 오빠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나는 오빠를 돕고 사랑해 줄 수는 있어도 변화를 강요하지는 못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오빠 자신이다. 오빠를 에워싼 맹렬한 허리케인에 갇힌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면, 때로 탈출구가 없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중독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과처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엄습한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어김없이 평안과 안도의 느낌,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게 잘 되리라는 지식을 통해 약간의 자유를 맞볼 순간을 안겨 주신다.

내게 평안을 가져다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즉각적이거나 놀랄 만한 기적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 중독의 매서운 바람에 맞설 때면, 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주님을 자주 떠올린다. 그때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구주께서 언제나 바로 곁에 계셨는데도 그분 대신 폭풍에 마음을 쏟는 쪽을 택했다. 주님은 그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마가복음 4:36~41 참조)

나는 구주께서 결코 내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배웠다. 언제나 내 인생에는 몰려오는 성난 파도에 맞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주님은 오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으며, 힘이 바닥났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고, 또 미지에 대한 그치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평안을 가져다주셨다.

언제나 희망은 있다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중독, 또는 외설물 때문에 이혼하는 많은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종종 듣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은 아무 가망도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 될 필요는 없다.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오빠가 겪는 고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금식을 할 때 오빠의 중독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이해심과 동정심,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10년에 걸친 이 시련을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원을 이용한다. 나는 친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주께, 그리고 그분의 치유와 구원의 권능에 의지한다. 그분의 속죄는 실재한다. 주님께서 나와 오빠가 겪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지식만큼 큰 위안을 주는 것은 없다. 시편 3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가슴 아파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또한 내가 행복을 되찾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분은 해변에서 허리케인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배 안에 머무시며 나와 함께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주신다. 구주는 폭풍이 몰아치는 내 인생의 바다를 계속해서 잠재워 주시며, 성장하고 참된 평안을 느끼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

주

1. 러셀 엠 벨슨, “중독을 원하는가 자유를 원하는가”,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6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3쪽.
3. 맬린 에이치 옥스, “작고 단순한 일”,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1쪽.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성악에 속하는 기적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여 노력함으로써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악을 성취할 때, 우리의 성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멜로디와
데스칸트처럼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져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멸의 삶이라는 학교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강화함으로써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효용성이 있는 방법들로 배움을 얻고 성장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강화하는 것은 가장 큰 두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일회장단 서한에서 배울 수 있듯이, “구주의 성역은 다음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잘 드러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 제일회장단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같은 견지에서 예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려고 [즉, 그들을 돌보게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임이라.’(제3니파이 13:25)”¹

부활하신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는 성악, 즉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로 이어 주는 성악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모사이야서 3:19)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 내는 조화를 찬미합니다.

이 조화는 행복의 계획으로 표현되는데, 이 계획에서 우리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매일 행사함으로써 배우고 성장하며, 홀로 방황하도록 버려지는 법 없이 성악의 길과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교리와 성약 61:1 참조)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제외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7:17)

우리의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로 이어 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도록 계획된 우리의 성약에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영원한 성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즉 소망을 주고, 사랑을 키우고, 우리를 들어올리고 변화시키며, 교화하고 성결하게 하고, 구속하고 승영하게 하는 권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참되고 신성한 자아를 밝혀 주는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인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고 지식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분과 같이 되도록 인도되고, 힘을 얻고,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약과 주님의 속죄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여 노력함으로써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약을 성취할 때, 우리의 성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멜로디와 데스크랜트처럼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져 나갑니다.²[데스크랜트: 멜로디보다 더 높은 음역대에 붙여진 선율-옮긴이] 우리의 성약과 우리 구주의 속죄는 더불어 작용하며 우리가 매일 필멸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지각하고,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하늘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할 수 있음을 아는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신앙과 힘과 신뢰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는 항상 불안에 휩싸이는 완벽주의라는 쳇바퀴에서 헤어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Let It Go”렛잇고, 놓아 버리라는 뜻.

디즈니 영화 겨울 왕국 주제가-“옮긴이”라는 노래에 진리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³ 만약 그게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세속적인 기대를 놓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주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집행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식은 보편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스테이크에서 침례를 담당하는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침례 의식이 외견상으로는 똑같지만, 침례를 받은 각 사람은 각자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구별되며, 또한 그 이름은 성약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에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제3니파이 11:25)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구주처럼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할 모형을 확립하셨습니다.(니파이후서 31:6 참조) 경전과 선교사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31:21; 또한 제3니파이 11:38~40 참조) 그리스도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⁴

물론 침례를 받으므로써 우리는 회개라는 문으로 들어서게 되며,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우리의] 죄 사함이 임”합니다.(니파이후서 31:17) 험착하고 좁은 길, 즉 성약의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니파이후서 31:18 참조) 이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화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성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른 방식으로도 서로 이어집니다.

성약에 속하는 것

성스러운 성약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속하게 됩니다. 성약에 속하는 것은



것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모사이야서 5:15; 엘마서 1:25 참조)

성약에 속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신약개조 제13조 참조; 또한 고린도전서 13:7; 모로나이서 7:45 참조) 성약에 속한다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서로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약에 속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친절하신 자비와 매일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증인이 되는



*성약에 속하게 되면 뿌리와 날개가 돌아옵니다.
성약에 속할 때, 우리는 결심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성약에 속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 확대됩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소유욕과는 다릅니다. 자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래 참고 ...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고린도전서 13:4; 또한 모로나이서 7:45 참조) 성약에 속하게 되면 뿌리와 날개가 돌아옵니다. 성약에 속하면, 우리는 결심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성약에 속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 확대됩니다.

성약에 속할 때 우리는 서로를 구주의 사랑으로 강화하며, 그로써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약에 속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3:5 참조) 성약에 속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3:6) 성약에 속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같이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3:12) 성약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8~9 참조)

성약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은, 볼 줄 아는 눈으로 보고 들을 줄 아는 귀로 듣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및 성약의 결혼을 포함한 관계들이 더욱 성결하고 성스럽게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결혼 관계 수업에서 어느 기혼 여성이 손을 들고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어려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결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운 거예요. 결혼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뒤따르는데, 이는 삶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맛보는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영원한 결혼은 우리의 이상인 반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모든 종류의 학대, 극복할 수 없는 부조화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 즉 별거와 어떤 경우에는 이혼까지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약이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아래, 그리고 경전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묘사된 성신을 통해, 즉 하늘에서 자비를 베풀어 성신을 통해 확인해 주실 때에만 구속력을 띠고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88:3)

합당한 개인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위안과 평안, 소망을 찾습니다.⁵ 주님의 약속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 각자를 강화하시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교리와 성약 88:68 참조)



“봉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젊은 감독 시절, 저는 와드에서 구주의 사랑 안에 서로를 강화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성약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스와 페이 리터 가족, 래리와 티나 오코너 가족은 여느 훌륭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 성역을 베풀었으며, 그들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스테이크 회장님이 제게 리터 가족을 확인해 보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는데,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폭 꺼진 바닥과 낡은 주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리터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감독님, 보시다시피 온수기가 새는 바람에 따뜻한 물이 바닥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는 흰개미가 꼬여서 바닥이 약간 꺼져버렸죠. 온수기를 차단해야 해서 주전자에 물을 데우고 있는 중이고요.”

리터 가족은 제가 그들의 상황을 와드 평의회에서 논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와드 평의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의회 일원들은 바닥, 벽, 카펫, 가전 제품, 페인트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래리 오코너였는데, 숙련된 건축업자인 래리는 리터 가족의 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래리의 아내 티나는 어떤 때는 래리와 다른 평의회 회원들이 금요일에 리터 가족의 집에 가서는 밤을 새 가며 일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갖다 주러 갔다가 배관 도구를 들고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죠.”

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리터와 다른 형제들 덕분에] 제 남편은 진짜 남자가 되었어요. 친절하고, 사려 깊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거죠. 그이는 유아반 등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전보다 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어요.”

집 수리가 끝나자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한스와 페이 리터가 이사간 지는 한참이

지났지만, 최근에 저는 그들의 두 아들인 벤과 스티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봉사 덕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던 자기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편, 리터 가족의 집 수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래리와 티나 오코너는 한 와드 모임에서 자신들의 집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보니, 창문들은 연기를 빼기 위해 다 부서져 있었고 벽은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와드 회원들이 와 주었죠.”

티나와 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와줬어요. 와드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와 주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 같았죠.”

오코너의 집을 수리하는 동안 처음으로 와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한스와 페이 리터 가족이었습니다.

벤과 스티븐은 자신의 가족이 오코너 가족을 도우러 갔던 것을 겸손히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봉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돌봅니다. 때로는 돕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요.”

저는 구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강화할 때 경이롭고 정결하며 조화로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코너 가족이 리터 가족을 돕고, 리터 가족이 오코너 가족을 돕고, 그러면서 후기 성도 공동체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방법으로, 작고 단순하고 강력하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랑의 성역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두 가지 종류로 경험합니다. 첫째, 성도들의 공동체는 긴급한 필요 사항을 돕기 위해 이타적인 마음으로 훌륭하게 단결하여 모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화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강화할 때, 성약에 속하는 가운데 거룩한 조화와 올림이 생겨납니다.

극적인 사건이 없을지라도 성도들의 우정은 여러 해에 걸쳐 가족, 지부, 와드 또는 공동체와 같이 다양하고도 일상적인 환경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성역을 통해 사랑 안에서 하나의 직물처럼 짜여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 안에서 강화되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 논의했던 것, 즉 가장 위대한 두 계명, 그리고 구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강화하고, 또 강화되라는 권유로 돌아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진실합니다. 우리는 회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⁶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니파이후서 32:3 참조)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마태복음 6:33 참조),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강화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화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강화할 때, 성약에 속하는 가운데 거룩한 조화와 올림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조화를 되새겨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 38~39)

이것은 또한 저의 엄숙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잠언 3:5 참조)

43개국에 있는 159곳의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성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님 안에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권세와 더불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친애하는 넬슨 회장님에게까지 계속되는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사건들을 통해 저는 “메시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복된 교리, 열쇠, 의식 및 성약의 실재성을 전보다도 더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더욱 겸손해졌습니다.⁷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을 비롯한 모든 거룩한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화되는 가운데,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구주를 더 잘 알게 되고 더욱 그분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

2018년 5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전한 “Strengthen One Another in the Lord”에서 발췌함.

주

1. 제일회장단 서한, 2018년 4월 2일.
2.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참조.
3. “Let It Go,” 겨울왕국(2013).
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40쪽.
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3.3 참조.
6.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18~119쪽.
7. 물문경 소개.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준 기도

우리 평의회가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 감독님은 나에게 이 일행을 인솔하도록 부탁하셨다. 나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출발 당일 아침에 우리는 기도를 한 후 버스에 올랐다.

여정 중에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다. 버스 안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10시간의 여정 동안 우리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오가 조금 못 되었을 때 버스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장이 생긴 것이다.

나는 근처 주유소로 달려가서 직원에게 정비소 위치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정비사 두 명을 불러 주었다. 정비사들은 금세 도착하여 버스를 점검했고, 팬 벨트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정비사들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몇 시간 동안 수리를 했지만, 결국은 다른 정비사까지도 불러야 했다.

새로 도착한 정비사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비꼬듯 말했다. “팬 벨트 고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시는지.”

하지만 그 정비사도 한동안 수리를 시도한 후 “이런 고장은 흔치 않은 건데.” 하고 말한 뒤 공구를 챙겨 떠났다. 남은 두 정비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애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성도들의 모습을 둘러보니 거의 모두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궁리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를 했나?’

나는 곧바로 일행들을 불러모았다. 우리는 둥글게 둘러선 후, 정비사들에게 버스 수리에 필요한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정비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다 고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다른 한 명의 정비사는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수리를 해낸 것을 축하해 주려 하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팬 벨트 하나 고치는 데 여섯 시간이나 들었는데 축하라뇨. 나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만 팬 벨트를 두 개나 고쳤는데 말이죠. 이런 고장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예요.”

나는 그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렸고,

그 덕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가 물었다. “팬 벨트를 고치게 해 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럼요, 5분 전쯤에 기도했습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정비사들은 수리비를 받은 뒤 돌아갔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갈 길을 재촉했다. 몇 시간 후에 우리는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

아이작 우투투,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전으로 가는 10시간의 여정 중에 우리의 버스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켰다.



그런 원망에 찬 감정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쪽지

남편은 11년간 치매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죽음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나는 그의 간병인이자 친구이고, 연인이었다. 남편이 더는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정말 기뻐지만, 그를 향한 그리움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나는 내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실의 고통과 슬픔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락의 길로 나를 몰아갔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게도, 비관이 내 삶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무시당하고, 쓸모 없으며, 가족과 친구, 와드 회원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남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느 일요일, 나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다. 사람 좋고 붙임성 있는 어느 자매가 와드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 그 자매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너그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자매는 나와는 절대 인사하지 않겠지. 조문도 오지 않았잖아. 남편을 잃고 얼마나 애통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성찬 찬송이 시작될 때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계속되었다. 그런 원망에 찬 감정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금 당장 이런 감정을 떨쳐 내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그런 생각에 이끌려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렸다. 사실 그 자매를 원망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용서를 간구하고 원망에 가득 찬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 성찬기를 든 형제가 내 앞에 다다랐을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진정되었다. 다음 주 내내 나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다.

다음 일요일에 예배당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지난 일요일에 눈여겨보았던 그 자매와 마주쳤다.

"어머, 캐럴!" 그녀가 말했다. "자매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건 자매님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겠죠. 정말 오랫동안 부군을 간병하셨잖아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몇 분간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정말로 따뜻하게 나를 안아 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나는 곧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주님께서는 그 선량한 자매에게 내가 꼭 들어야 할 말들이 적힌 쪽지를 보내 주셨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일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

캐럴 휘터커, 미국 오리건주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진료가 밀려 신경과 진료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행히 한 환자의 진료가 일찍 끝났다. 안도감을 느끼며 진료 책상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가 갑자기 진료와 관계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다급했지만, 다시 앉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최근에 몸져눅게 된 아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도 자기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환자의 부인은 며칠 동안이나 몸져누워 지냈고 정신까지 흐려져서 말에 조리도 없어졌다고 한다. 환자 본인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얼마 안 가서 두 사람 모두 상태가 악화되었다. 부부는 더이상 서로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다. 환자의 처제는 그들의 집에 와서 두 사람을 보고 기함을 했다. 그녀는 구급차 두 대를 불러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 진찰 결과, 환자의 부인은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아내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환자의 부인은 심장마비까지 와서 생명 유지 장치에 몸을 맡겨야만 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병실에서 아내가 누워 있는 중환자실로 갔던 날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날 그는 의료진에게 아내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전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는 악수를 청한 뒤 진료실을 떠났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들어 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료실을 떠나려다 다시 앉길 잘 했지! 그가 마음속의 짐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내가 진료실을 나가버렸다면 그는 어떤 기분을 느꼈겠는가?

그날 왜 그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 준 이유는 분명하다. 엘마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짐을 져 ... 슬퍼하는 자들과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모사이야서 18:8~9)

내 환자는 마음에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었고, 나는 그가 그 짐을 감당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다. 그는 슬픔 속에 있었으며, 나는 그와 함께 슬퍼했다. 그는 위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로했다. 이러한 소박한 방식으로 나는 좀 더 나의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

앨런 비 샌더슨, 미국 유타주

환자가 진료와는 관계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다급했지만, 다시 앉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지자가 보낸 편지

남편이 교회를 소개했을 때, 나는 선뜻 교회에 가입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했다. 남편은 내게 물문경을 한 권 주었고, 많은 토론을 하고 거의 2년 정도 선교사들을 만난 끝에 나는 2007년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로도 한동안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현대에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생각에 선지자는 지팡이를 든 모세와 같은 존재여야 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겠지?” 나의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답했다.

“그럼.”

“정말 그래?”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그러면 나는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지자가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편지에 적어서 나에게 보내게 해 달라고 말아야.”

“그러지 마!” 남편이 만류했다.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결심했다.

“선지자가 주님과 대화한다면,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테고, 그럼 선지자가 내게 편지를 보내겠지.”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한 선교사가 내게 DVD를 하나 주며 가족과 함께 보라고 권했다. 그 DVD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증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연사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셨다.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힝클리 회장님은 진지한 태도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남편이 말했다. “봐, 이게 바로 당신을 위한 선지자의 간증이야.”

“아니야. 그래도 선지자의 편지는 받아야겠어.”

어느 날 저녁,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잡지 한 권을 건넸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매님께 이 책을 드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잡지는 아직 결봉을 뜯지 않은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였다.

잡지를 펼치자 힝클리 회장님이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이 나왔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 간증과 저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저의 사랑과 이 후기의 위대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생활하시라는 저의 권유를 전해 드립니다.”¹

마치 힝클리 회장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 그 잡지는 내가 아직 교회에 다니기 전에 발행된 것이었지만, 나를 위해 그중 이 한 권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날의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 ■

켈리 산토스 피게이레도 히베이로, 브라질 고이아스



선교사들이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한 부를 내게 건넸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매님께 이 책을 드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2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12개의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하루 동안 이처럼 많은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성전이 들어설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 필리핀 다바오
- 나이지리아 라고스
- 아르헨티나 멘도사
- 카보베르데 프리아아
- 멕시코 푸에블라
- 브라질 살바도르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 미국 유타 워싱턴카운티
- 괌 지고
- 미국 캘리포니아 유바시티



“이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 잭 엔 제라드 장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09쪽.

생각해 봅시다 ...

“우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이타적인 봉사가 주는 기쁨”,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56쪽.

여러분의 생각을 페이스북의 *리아호나* 페이지에서 나누거나 일지에 기록해 보세요!

더 깊이 알아보기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주님 교회의

회원으로서 구주의 이름을 받드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넬슨 회장은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생략할 때, 우리는 무심코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구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8쪽) 이 외에 다른 여러 지도자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전했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와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자문해 보라고 권유했다. (“노력, 노력, 노력”,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91쪽)
- 로버트 시 게이 장로는 구주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조,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97~99쪽 참조)
- 폴 비 파이퍼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받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쳤다.(“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43~45쪽 참조)

주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일지에 기록해 본다.

해 봅시다!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전해진 몇 가지 권고들이다. 이 권고 목록에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들을 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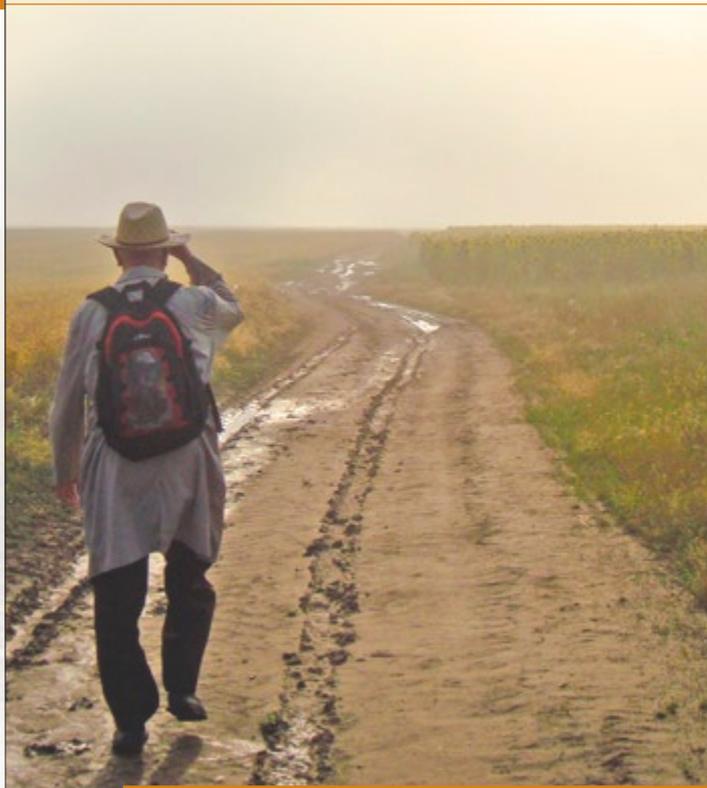
- “[새로운 친구들을] 더욱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돕기 위해 바로 다음 일요일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율리세스 소아레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39쪽)
- “[교리와 성약 138편에 있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에 대해 이 계시를 깊이 생각하며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엠러셀 벨라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3쪽)
-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과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닐 엘 앤더슨, “상처 입은 자”,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5쪽)

연차 대회에서 배운 것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로 보내거나 facebook.com/liahona에서 나눠 주세요.

내 연차 대회 할 일 목록

“한 친구는 제게 자신은 연차 대회 말씀을 읽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권유한 내용을 목록으로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록을 토대로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데 도움이 될 여러 목표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만의 목록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곱씹어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드나 워시번, 미국 유타주



질의응답

예전에는 세계도 간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제 신앙도 예전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믿는 일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적이거나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종교를 어리석은 전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토론하고 이론을 제시하는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우리가 발로 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에 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심어서 후에 열매를 거두게 해 주는 쟁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으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47쪽.

대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facebook.com/liahona에서 나눠 주세요.

십일조에 대한 간증에서 성전 성약까지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은 테드 하이엇과 캐럴 하이엇 부부의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캐럴 하이엇은 그녀의 감독이 개인 재정에 관한 자립 강의를 맡아 달라고 했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캐럴과 그녀의 남편 테드는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42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다. 캐럴은 원래 앞에 나서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캐럴은 그녀의 감독인 토드 에이 조시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에 토드는 캐럴이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학생이었다.

캐럴 내외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당시, 캐럴은 감독 토드 조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감독님, 저는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부름을 맡고 싶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2년 후에 조시 감독은 하이엇 부부의 집에 앉아 교회의 자립 봉사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캐럴에게 그것은 난생처음 들어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조시 감독은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캐럴에게 성공적인 재정 관리로 이끄는 원칙을 가르치는 12주간의



강의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 안내서 한 권을 캐럴에게 건넸다.

캐럴은 “제가 왜 맡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회상한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걸 두려워해요. 게다가 저보다 더 복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 회원들과 매주 하루 저녁을 12주간이나 함께 보내야 한다니 정말 내키지 않았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조시 감독은 캐럴이 주저하면서도 부름을 받아들인 것에 놀라지 않았다. 바로 얼마 전에 조시 감독은 오리건주의 포레스트 그로브에서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캐럴 자매님에게 개인 재정 그룹 강의를 하는 축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어요.”

조시 감독은 캐럴이 그 강의를 말씀으로써 본인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즉 십일조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렬한 영감을 느꼈어요. 캐럴 자매님이 그 강의를 맡으면 십일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2017년 10월, 캐럴은 준비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강의를 시작했다. 캐럴이 맡은 재정 관리에 관한 토론 강의는 예산 계획 및 실행,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위한 준비, 부채 청산 방법, 재정 위기 타개 방법,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캐럴은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는 차차 자리를 잡아 나갔지만, 자립에 대한 본보기로 나서기에는 어딘지 난감한 데가 있었다.

세 번째 수업을 준비하며 안내서를 검토하던 중에 캐럴은 ‘재정 관리에

대한 자립적인 방법’에 십일조와 헌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¹

그녀는 또한 그 접근의 기본 원칙은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²

그녀는 말한다. “그 후 강의 시간에 저는 제가 아마도 반에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러자 13명의 수강자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십일조의 율법이 주는 축복에 관한 반원들의 토론과 간증이 이어졌다.

“전에는 십일조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유를 몰랐었죠. 그러다 그것에 관한 간증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반원들과 남편이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 줄 때 영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제게 필요했던 작은 신앙을 새로이 얻게 되었고, 제가 반원들에게 당부했던 일들을 저 스스로 하고 있었다면 더 나은 진행자가 되었으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 문

11주째 강의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후, 캐럴은 교회에서 조시 감독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십일조의 율법에 따라 살 준비가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감독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내의 강의에 참석하던 테드 형제는 가슴이 설렘다. 그 전 해에 십일조를

낼 때 그는 캐럴이 바라는 축복을 환기시키며 십일조를 내도록 자주 아내를 독려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2018년 5월 26일, 하늘 문이 열리며 캐럴이 강연을 시작했던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이 테드와 캐럴 내외에게 부어졌다. 하이엇 부부의 58번째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그날, 두 사람은 성약을 맺고 오리건주의 포클랜드 성전에 인봉되었다.

하이엇 부부는 그날의 경험을 언제까지나 감사할 ‘아름다운 날이자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한다. 캐럴은 또한 자신을 독려해 준 남편과 영감을 받고 이끌어 준 감독, 그리고 본인이 주었던 도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 강의 참가자들에게 늘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한다. 강의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이들이 하이엇 부부의 인봉식에 참석하여 사랑과 지지를 표현해 주었다.

캐럴은 말한다.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영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남편과 저의 삶은 그것 덕분에 영원한 변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

주

1.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2016), 42쪽.
2.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 36~37쪽 참조.

회개를 가르치는 10가지 비결

어린이들과 십 대들에게 회개는 때때로 두렵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랑과 격려 속에서 그들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단순하게 말한다.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도 가르칠 수 있다.¹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어떤 경우에도 "회개는 언제나 긍정적"이다.² 회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기 위해 시작해야 할 일이나 그만두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라고 자녀들을 격려한다.

매일 회개할 것을 강조한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회개해야 한다. 매일 회개한다는 것은 배가 항로를 유지하는 것처럼 잘못을 자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이 나날이 자신을 향상시킬 작은 방법들을 깨닫도록 돕는다.

실수에 대해 여지를 준다. 자녀들이 실수도 배움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인이 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기회를 주고,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돕는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친다.

모범을 보인다. 부모가 범한 실수도 인정한다. 자녀들에게 사과하거나 자녀 앞에서 사과할 정도로 겸손하라.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방식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구주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한다.

개인화한다. 자녀에게 회개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는³ 회개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회개란 끝내야 할 할 일 목록이 아니다. 회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성장 과정이다. 회개는 우리 가슴 속 열망에 관한 일이자, 구주께 우리를 맞추기 위해 분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 용서를 느낌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회개했음을 알게 된다.

긴 안목으로 본다. 똑같은 그릇된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용기를 잃기 쉽다. 자녀에게 우리가 회개를 거듭하는 한 하나님께서도 거듭 용서하신다고 가르친다.(모로나아서 6:8 참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려는 자세임을 이해시킨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간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죄의식과 수치심을 구별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요구한다.(고린도 후서 7:9~10 참조) 그러나 자녀가 회개한 후에도 자신이 무가치하거나 가망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수치심이 원인일 수 있다.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며 “죄를 범하면 우리의 합당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 준다.⁵ 필요하다면 감독이나 전문 상담사와 만나는 것을 고려한다.

구주의 속죄를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 내 주셨음을 자녀에게 가르친다.(엘마서 7:11~12) “다른 사람들의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도록” 가르친다.⁶ 학대의 피해자들은 명백히 무죄하다. 그들이 구주께로 향하여 평화와 치유를 구하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구주께로 향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난관과 분투를 이해하시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가르친다. 가정에서 구주에 대해 자주 간증한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경전을 학습하고 구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주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번 호 친구들 이야기

- “노력하겠다는 약속”(F4쪽)
-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할 거예요”(F6쪽)
- “빛나는 아이디어”(F7쪽)
- “요요를 보며 결심했어요”(F16쪽)

더 많은 자료를 보려면 lessonhelps.lds.org에서 “주제별 학습 도움말”을 클릭하십시오.

십 대를 위하여

이번 호 이야기

- 질문과 답변: “같은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62쪽)
- “이미 회개한 죄를 떨쳐낼 수 없어 죄책감이 듭니다. 왜 지나간 죄를 잊을 수 없는 걸까요?”(63쪽)

주

1. 닐 엘 앤더슨,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쪽.
2. 스티븐 더블유 오언, “회개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8쪽.

3. “19장: 회개”, 복음 원리(2009), 107~113쪽 참조.
4. 웬디 울리치,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리아호나*, 2015년 4월호, 20~25쪽 참조.
5. 조이 디 존스,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4쪽.
6.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7쪽.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같은 제목의 기사를 읽으며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인물이(더 중요해지려면 아마도 더 겸허해져야 할 것이다) 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우리가 하는 기여는 세상에서 알아 주는 그 무언가일 때도 있지만, 때로 그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이행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도우며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꼭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족, 룸메이트와 맺는 관계, 이웃 사이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변화하여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기 시작할 때, “봉사할 시간”(44쪽) 기사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타인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내면을 바꾸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영역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선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군대”(46쪽)에서는 몇몇 청년 성인들이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웠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들 청년 성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영감과 신앙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는지 이야기한다.**

가바렛 장로는 우리가 이미 영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49쪽 참조) 전세에서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을 선택했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을 찾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회에는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의 30인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영향력 있는 청년 성인 회원이 있다. 내가 알게 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며,] 듣기만 하는”(야고보서 1:22)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Elizabeth Stitt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고의 조언 ...

청년 성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이야기한다.

“늘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이 나눌 수 있는 고유한 빛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타인의 삶을 지지해 주고 격려하고 환하게 밝혀 주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빛을 밝혀 타인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휘트니 핸더슨, 미국 콜로라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자체에 구현하여 사람들이 당신이 달라진 이유를 묻도록 하세요.”
—**파멜라 카스티요, 과테말라 산마르코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의 몇십 분의 일만이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신념이 생깁니다.”
—**새뮤얼 워드, 미국 아이다호주**

“세상 전체를 바꾸려 들기보다는 여러분의 작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아 보세요.”
—**퀸시 헤이슬리, 미국 유타주**

한때 외설물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과 데이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2월 28일까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리즈 스티트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유타 대학교에서 MBA(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제품 관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나 진정 사랑하는 일은 ‘전문적인 이모 역할’이다.



민디 셸루는 리아호나

잡지의 편집인이다. 민디는 주부이며, 고양이 애호가,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사진 촬영, 영화 감상, 끝없이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취미이다.



헤더 제이 존슨은

작가이자 편집인이다. 헤더는 수상 스키와 눈 덮인 산에서 하는 겨울철 모험을 즐긴다. 그녀는 영국 문학을 즐겨 읽고, 일상 대화에서 친밀감 있고 격식 없는 말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케이티 수 엠블리는

세상은 널리 알려져야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선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문방송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로리 풀러 소사는 친구들

잡지의 편집인이다. 로리는 새로운 음악 예술인들을 찾거나 라디오 뉴스를 듣고, 세계 곳곳의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로리는 때로 글을 끄적인다.



청년 성인

소개

- 44 봉사할 시간 리즈 스티트
- 46 선을 위한 강력한 힘 민디 셸루
- 49 여러분은 진실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온라인 전용

하루 24시간으로는 시간이 모자라는가? 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법을 배워 보자 헤더 제이 존슨

작은 방법으로 베푸는 성역 케이티 엠블리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로리 풀러 소사



아래의 기사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lds.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청년 성인인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봉사할 시간

리즈 스티트

몇년 전에 나는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MBA 과정을 밟고 있었다. MBA 수업 후에 생기는 “여분의” 시간에 나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때 신뢰하는 한 교수님께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조언을 주셨는데, 그분은 봉사할 기회를 직접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교수님은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책임들도 익히 알고 계셨지만, 평소에 내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너머를 살펴보도록 제안하셨다.

나는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이 필요한 곳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다. 나는 곧 십 대 대상 프로그램에서 멘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커뮤니티 센터로 인도되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소말리아에서 온 한 십 대 난민 소녀의 멘토가 되었다. 우리는 매주 함께 읽기와 쓰기, 수학 문제

풀이를 연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정을 쌓고 서로의 문화와 미래의 꿈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에는 또 다른 소녀를 맡았다. 그 소녀는 가족과 함께 미얀마를 탈출했고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성장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삶의 난제들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내 능력을 활용하고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청년 성인들은 무엇보다도 이주, 졸업, 이직으로 시간 활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는 자주 청년 성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영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그 이상의 목적과 의미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분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며, 잠시 시간을 내어 타인에게 힘이 되도록 여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타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결국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성약을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시간을 점검한다.



공책이나 일정표를 사용하여 본인의 시간 활용 방식을

추적해 본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허비되고 있는 몇 시간의 여유가 있는가? 혹은 불필요하게 많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투리 시간이 언제 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봉사에 사용할 시간을 계획한다.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본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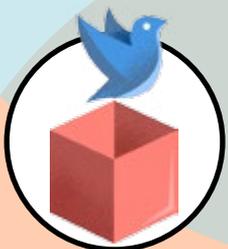
기도한다.



본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 하늘의 인도를 구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고, 방법들을 찾는다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 어린 행동을 하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1쪽, 번역 수정)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멘토로 봉사할 때 처음에는 상대를 상대하고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동기 부여와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저 함께 있어 주며 경청하고 신뢰와 안정성을 주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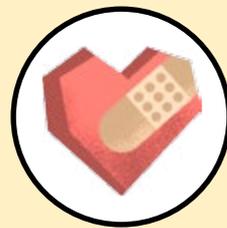
일관되게 노력한다.



많은 조직과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나 한번의 방문을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닌, 일관되고

규칙적인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인내한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힘이 들어. 내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그러나 일단 돕기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한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면 대부분 기분이 좋았고, 다시 오겠다고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봉사 임무가 지나치게 버거울 경우, 다른 기회를 고려해 보거나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필요한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좁든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선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선을 위한 강력한 힘

민디 셸루
교회 잡지

모든 일은 4월 중순에 몰아친 눈폭풍 속에서 시작되었다. 유타주에서 4월 중순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성전 광장에서 눈보라를 이겨 내고 있는 툴립의 모습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귀엽기는 하지만) 우리 집 고양이들 대신 성전의 정경을 담은 사진들을 올렸다.

그렇게 1년 간 매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몇 년 더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사진을 올렸다.) 성전 사진을 찍어 성전에 관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인용구를 함께 올리는 일은 재능을 키우고 성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는 재미있는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를 잡고 있음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소위 “영향력 있는 유명인”은 아니지만, 나의 이런 노력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분주하고 빠르게 흐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타인을 축복하고 선한 세력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 선행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

나는 선한 세력이 되기 위해 다른 청년 성인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자애를 얻기 위해 간구하며

Kaveria ei jätetä. 핀란드어로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핀란드인들은 전쟁 중에 생겨난 이 말을 지금까지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 핀란드 우우시마에 사는 23세의 룰레란타니에미는 이 말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영감을 얻는다.

“저만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저는 누구든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단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어느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되죠. 어릴 때 저는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였어요. 친구가 없어서 겪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죠. 그래서 누구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핀란드인의 정신을 토대로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관계는 현세를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지식 또한 그에게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모범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근면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구현하는 거죠.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자애와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룰레는 선을 행하는 가장 큰 도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로나이서 7장 48절을 보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했어요. 진실로 우리의 눈을 뜬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봉사의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룰레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작은 일들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 작은 것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높은 목표로 향하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23세의 다니엘 고도이는 밝고 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것은 그가 하는 많은 선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모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산한다.

칠레 산티아고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외동으로 자란 그는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범을 보며 성장했다. 다니엘은 선교사 봉사 연령이 낮춰졌을 때 고향 스테이크에서 최초로 18세에 선교 사업을 나감으로써 이른 시기에 봉사하고자 준비하는 다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그는 고향에서는 최초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그의 추진력은 다른 이들에게 교육을 향한 영감으로 작용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도록 영감을 준 셈이죠. 제가 먼저 디딘 작은 발걸음이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며 겪었던 일들 또한 다니엘이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겠다는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의 장기적인 목표는 칠레로 돌아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건 칠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기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한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저의 이런 노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7세의 케이틀린 레이는 사회 복지학 학위를 딴 후 남들처럼 사회에 진출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그녀는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에 마음이 이끌렸다. 그녀는 전 세계 빈곤 퇴치에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케이틀린은 그리스의 난민들과 네팔의 학대 희생자들을 위해 봉사했다. 케이틀린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정부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직접 목격했다. “그 일을 위한 가교가 될 때마다 제가 정말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사람들의 문제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청년 성인인 우리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경력을 어떻게 쌓을까?’, ‘학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까?’, ‘어떻게 하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까?’ 등의 문제에 집중하면서요. 모두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눈길을 내가 아닌 주변으로 조금만 돌리면 진정으로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을 가까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도 말이죠. 모든 작은 일들, 친구를 복돋아 주거나 가족과 함께 있어 주는 일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했음을 깨닫는 짧은 순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본인만의 영향력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먼 곳까지 가서 고아원을 지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성전 사진을 올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거나 비영리 단체의 책임자가 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본인만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말한 다음과 같은 대목은 청년 성인들에게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여러분은 선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군대, 즉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자신의 가정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0쪽) 그러므로 부단히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강력한 선한 세력이 될 것이다. ■

선한 세력으로서 영감을 주는 다른 세 청년 성인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에 수록된 이 기사의 전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철심인 정원희

여러분은 진실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 늘날의 영웅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소위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추동력, 즉 복음 지식에 따라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 세계에서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루시퍼와 그의 계획에 맞섰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승리자였으며,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바라보며 전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만족에 젖어 무감각해지는 그저그런 길을 택하지 맙시다. 달라지겠다는 결심으로 내면의 힘을 행사하여 변화를 일으킵시다.

싸워 나가야 할 송고한 이유가 많습니다. 길을 다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들 중 한 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이며 승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송고한 가치를 선택하여 그분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도와줘야 할 사람들, 끌어올려야 할 손, 단련시켜야 할 약한 무릎, 찾아가서 구조해야 할 죄인들, 먹여야 할 굶주린 이들, 입혀야 할 헐벗은 이들, 치료해 주어야 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며,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 시온 군대’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¹

우리의 구주와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십시오.(여호수아 24:15)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2017년 5월 1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에서 전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에서 발췌함.

주

1. 오손 에프 휘트니, 공헌자, 1888년 7월, 301쪽.

선교사 훈련원 에서 하게 될 경험

놀라운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마침내 오늘 선교사 부름장을 받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여러분의 부름장에는 특정한 장소, 선교부에서 사용하게 될 언어, 그리고 봉사가 시작되는 날짜가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13곳의 선교사 훈련원(MTC)중 한 곳에 입소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선교사 훈련원까지 차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선교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을 주차장에 있는 입구까지 안내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안내 선교사들을 만나고,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안내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인데, 그들은 여러분보다 몇 주 일찍 선교사 훈련원에 온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여러분이 명찰을 받고 교실을 찾는 동안 여러분의 짐을 숙소로 옮긴다.

이번 호 이야기

- 58 가시겠습니까?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 61 켄에게 내민 손길
이프라임 옹
- 62 질의응답:
같은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페루 선교사 훈련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과테말라 선교사 훈련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인터뷰한 9명의 선교사 중 하나인 행크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들 정말 친절해요. 같은 구역 선교사든, 그냥 마주치는 선교사든, 모두들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요.” 행크스 자매는 표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녀와 같은 구역에 속한 선교사들은 대만,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프레스트위치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마침내 이곳에 있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요구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 멋진 일은 없어요.”

첫 수업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간 뒤에는 곧바로 학습 과정이 시작된다. 첫 날 여러분은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우고

연습하게 된다.

싱글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실로 들어갔을 때, 먼저 입소해 있었던 우리 지역 소속의 모든 선교사와 교사들이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애덤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배우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 주기예요.”

모든 선교사 훈련원은 똑같은 교과 과정을 사용한다. 규모가 작은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선교사 훈련원 회장과 그의 부인이 여러분을 빈번히 접견하고 가르치며, 자주 교류할 것이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전하는 영적 말씀은 다른 선교사 훈련원에도 중계된다.





흥미로운 사실

- ▶ 매년 선교사 훈련원을 거쳐 가는 선교사는 약 4만 명에 달한다.
- ▶ 규모가 작은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한 번에 약 35명에서 150명의 선교사가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한 번에 약 2,000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 멕시코 선교사 훈련원에는 보통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은 1,200명이다.
- ▶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총 58개에 달한다.
- ▶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선교사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3주간 머무른다.
- ▶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선교사들은 6주에서 9주간 선교사 훈련원에 머무른다.



잉글랜드 선교사 훈련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훈련원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



가나 선교사 훈련원



콜롬비아 선교사 훈련원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새로운 지부

규모가 큰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지부 회장단(선교사 훈련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인근 지역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 이끄는 지부에 참석하게 된다. 그들은 일요일에 그 지부에서 열리는 성찬식에 참석한다. 규모가 작은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의 지시 아래 함께 모인다.

규모가 큰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각 선교사들이 여러 구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배정된다. 선교사들은 선교 임지에서 그와 똑같은 조직을 접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한 구역은 동반자 한두 개 조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대여섯 개 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 지역은 혹은 두어 구역으로 혹은 여섯 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선교사들의 훈련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 내외와 지부 회장단 내외는 선교사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선교사들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한 주 일과

선교사들은 동반자 및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쓰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보통 네 명이 한 방을 쓴다. 선교사들의 일과에는 매일 운동을 하고(일요일 제외), 계획을 세우고, 식사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간은 교실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복음 교리, (필요한 경우) 언어, 가르칠 사람들을 찾는 방법,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복음에 관한 이해를 연마하고 복음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선교사 훈련원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다. 교사는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맡게 된다. 하루 일과는 고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잭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오기 전에는 이것이 약간은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즐거운 경험만 하고 있어요. 정말 신이 나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한 선교사들에게는 봉사할 기회 및 준비일이 주어진다. 준비일에는 세탁을 하고, 방을 정리하고, 집에 편지를 쓴다. 그날 선교사들은 성전에 방문할 수도 있다.

일요일에 선교사들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하거나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에서 반원들을 가르치도록 권유받기도 한다. 장로들은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일에 참여한다. 일반 교회 모임 외에도 선교사들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지부 및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과 접견하고, 교회 미디어를 시청하고, 동반자와 대화를 나누고, 개인 공부를 한다. 지역 지도자나 구역 지도자 및 자매 훈련 지도자는 일요일에 지도력 훈련을 받는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미리 계획되어 있지만, 계획에 없던 시간이 생길 때도 있다. 헵크스 자매는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동반자

선교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고된 일일 수 있다. 향수병에 걸리거나, 익숙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공부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교회 출판 자료인 ‘선교사 생활에 적응함’은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인쇄된 책자로 볼 수 있고, 또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보거나, 복음 자료실 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선교사 생활에서 적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항상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동반자는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다른 언어를 말하거나, 함께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선교사는 다른 누군가와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또한, 함께 가르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질프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한번은 동반자와 함께 토론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우리는 생각이 달랐고, 서로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르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랑과 겸손, 대화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리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동반자를 이해하고, 동반자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하며, 상대방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시간을 내어 하루 혹은 한 주를 검토하는 동반자 모임을 합니다.”

동반자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때, 단합의 힘을 배우게 된다. 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조금 잊어버리고, 한 팀으로서 동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합하게 되면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향수병이 온다면

선교사 훈련원에 새로 온 선교사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살리바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며칠 동안 향수병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서로에게서 평안을 찾고, 지도자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곧 나아지죠. 저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지만, 제 일에 집중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줄립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기분이 좋은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유론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발 물러선 뒤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칠 사람들을 위해 배우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훈련자, 지도자, 동반자 등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싱글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하루는 수업을 듣다가 완전히 좌절할 적이 있었는데, 동반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잠시 동안 함께 산책을 했어요.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약간 우는 게 도움이 되었죠. 일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훈련원을 나설 무렵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열린 마음과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리라는 신뢰를 품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온다면, 이곳은 선교 사업을 위한 강력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간증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법과,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영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및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 임지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주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해당 지역: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훈련 언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1,180명

브라질 상파울루



해당 지역:
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훈련 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3,285명

멕시코 멕시코시티



해당 지역:
멕시코, 북미, 중미, 남미의 기타 국가

훈련 언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4,848명

잉글랜드 프레스턴



해당 지역:
유럽

훈련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785명



멕시코 선교사 훈련원

유타주
프로보



해당 지역:
전 세계

훈련 언어:
57개
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20,515명

콜롬비아
보고타



해당 지역: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훈련 언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3,434명

페루
리마



해당 지역:
볼리비아, 페루

훈련 언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1,634명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해당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서인도 제도

훈련 언어:
영어, 프랑스어/크리올어,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442명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해당 지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훈련 언어:
퀘치아, 스페인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1,599명

가나
아크라



해당 지역:
콩고 민주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서아프리카

훈련 언어:
영어, 프랑스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1,740명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해당 지역:
케냐,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훈련 언어:
영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376명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당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터티티, 통가

훈련 언어:
영어, 프랑스어, 사모아어, 통가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2,302명

필리핀
마닐라



해당 지역:
아시아

훈련 언어:
캄보디아어, 세부아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표준 중국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연간 훈련
선교사 수:
2,343명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1학년을 다닐 때까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교회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각 와드에서는 일 년에 단 두 명의 선교사만 내보낼 수 있었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부름을 받는 대신 아마도 군대에 징집될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선교사로 봉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제가 선교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1969년 가을에 저는 유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 1월 말에는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그 해 봄에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독님의 전화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집에 돌아온 저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감독님이 전화하셨더군요. 너와 만나고 싶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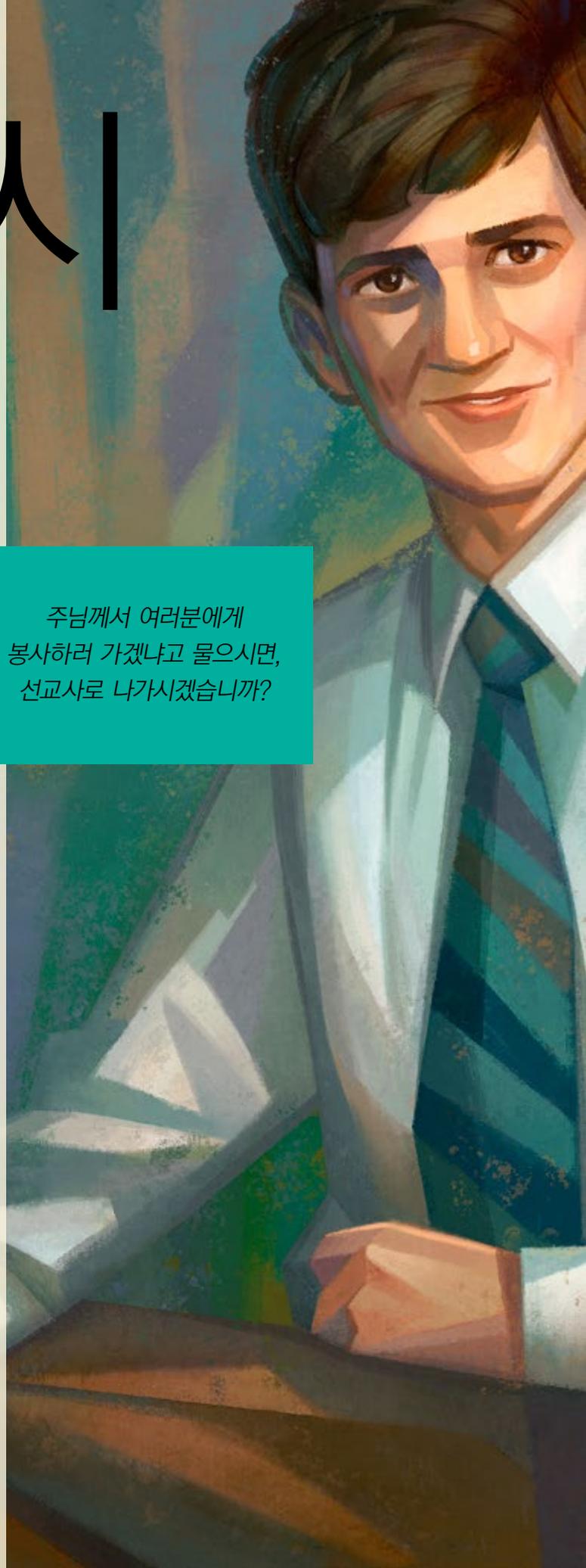
저는 “그럴 시간은 없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감독님을 뵈러 갈 수 없다면,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라.”

사실 그 정도로 바쁜 건 아니었으므로, 저는 감독님을 뵙기 위해 감독실을 찾았습니다. 감독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책상은 평소와 달리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예상한 그런 접견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된 와드가 생겼어요. 선교사를 한 명 더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와드에 왔는데, 감독단은 지금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제가 형제님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형제님이 바로 지금 선교 사업을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독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러 가겠냐고 물으시면,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까?



계셨습니까?



영화: 펜 사이먼스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제한된 선교사 숫자 때문에 저는 선교 사업을 절대 못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도 되겠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감독님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으셨고, 저는 일주일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주변을 운전하며,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결정

몇 분 후, 저는 다시 교회로 차를 몰았고, 주차를 한 다음, 감독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독님은 여전히 빈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감독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자 감독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만약 지금이 제가

봉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을 모두 말씀드리다가는 자칫 울음을 터뜨리게 될까 봐 약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접견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마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저 선교 사업 나가요. 곧 떠나게 될 거예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로 친절하고도 힘이 되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의 제 아내인) 여자 친구를 만나서 제 결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걷고, 대화하고, 울고, 또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수 있다면, 저는 가야 하고, 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8월에 일본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1970년 10월 10일에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엘마서 24장에서, 갓 개종한 상태였던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은 절대로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적들이 공격하러 몰려오자, 그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는 대신 기꺼이 죽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뒤에 27장에서, 암몬은 왕에게 그 땅을 떠나 니파이인들과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왕은 니파이인들 역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엘마서 27:3~6 참조) 암몬이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 여쭙으리니,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 가라 하시면, 가시겠나이까?”(엘마서 27:7)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의 왕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께 여쭙어 보라, 만일 그가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엘마서 27:10) 암몬이 여쭙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은 주저 없이 떠납니다.

인생의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생에서 경험하는 영적 성장과 축복의 많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 답하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이 결정의 날이며,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영원을 위한 결정”,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8쪽)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부모와
대화하고,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지금이야 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면,
가야 합니다.



저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교 사업이 끝난 지 26년이 지난 1998년에 저는 선교부 회장으로서 일본에서 봉사하도록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선교부는 아니었지만, 제가 사랑했고 저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일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고 몇 년 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만남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회장님은 제게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부 회장으로서 제가 해 온 경험들을 숙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총관리 역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제가 한 경험들과 결정들로 말미암아 저를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선교사 연령을 낮추겠다는 발표를 하신 이후,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고, 감독님과 상의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의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면,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내하며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

켄에게 내민 손길



이프라임 웡

켄 여섯 살 때 나는 대만인 와드로 소속을 옮겼다. 이 와드에는 최근에 침례를 받은 열세 살 난 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켄은 침례를 받은 직후부터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나는 켄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무척이나 돕고 싶었다. 나는 켄을 교회의 여러 활동 모임에 초대했다. 켄은 상호 향상 모임에서 농구를 했고, 청소년 합창단에서 노래도 불렀다. 켄과 켄의 여동생 린다는 우리 가족과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무료 영어 수업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곧 린다도 청소년 활동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켄의 가족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켄과 린다를 도우려 애쓰는지 의아해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구주께서 주시는 똑같은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내가 성역을
베풀려고 노력하자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바란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린다와 켄은 교회에 나오라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린다는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멋진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켄이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켄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했을 때 나는 켄에게 성찬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독님의 허락을 받은 후 우리 가족은 켄의 집을 방문했고, 형과 나는 켄에게 성찬을 집행해 주었다. 우리는 켄의 가족들도 만났다. 그러면서 나는 평안함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켄을 위해 기도해 왔고, 우리는 켄과 켄의 가족에게 사랑을 느낀다. 와드와 스테이크 내의 청소년과 성인들도 계속 켄과 린다에게 친근하게 대해 준다.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회원들의 하나 된 노력은 켄과 린다가 구주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러한 경험은 내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성역은 주님의 사업이며, 그렇기에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

글쓰이는 대만에 산다.



“같은 유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거나 반복해서 실패와 실망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

노력하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는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갈지에 관심을 더 많이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일 지 랜렌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15년 4월 연차 대회.



유혹의 원천에서 벗어나세요

휴대 전화에 중독된 것이라면, 전화를 없애 버리거나 부모님께 전화 사용을 제한해 달라고 도움을 구해 보세요. 만약 그러한 유혹의 원천이 친구들이라면, 좋은 친구를 찾고 여러분이 항상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세요. 영이 함께하고,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면, 더 쉽게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은 오지만, 그것에 저항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못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콜튼 비, 17세, 캐나다 앨버타주



자주 기도하세요

저는 개종자라서 교회의 관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조금 더 쉽게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멜라 에스, 19세, 칠레 양키우에주

생각을 통제하세요

생각은 행동의 관문이에요. 유혹은 마치 머릿속에 기억되는 멜로디처럼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느껴지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다!

타이나라 에스, 19세, 브라질 상파울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처럼 여러분과 같은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렇게 하면 유혹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교회 활동, 특히 선교 사업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투케이 장로, 20세,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

기도를 통해 위안을 찾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로는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괴로운 일을 잊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찾든 간에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애나 피, 12세, 미국 유타주



이미 회개한 죄를 떨쳐낼 수 없어 죄책감이 듭니다. 왜 지나간 죄를 잊을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진정한 회개에는 겸손, 고백, 죄를 버림,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그러나 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참되고 충실하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성결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안전한 귀환 지점”,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1쪽)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주를 따르는 것에 집중할 때, 성신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수치심의 고통은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제시된 의견들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교회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3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 제출 혹은 피드백” 클릭)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자 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설 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악했던 제가 아닙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다시 시도하는 즐거움을 주신 것이니, 결코 실패로 끝을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¹ 비록 의식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거나 반복해서 실패와 실망을 겪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시도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신은 절대로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기 성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또한 죄를 극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는 어긋난 관계, 경제적 어려움, 질병, 또는 다른 누군가가 지은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을, 특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받는 고통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법의 결과로 죄 없이 겪는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것입니다.(이사야 61:1~3; 또한 누가복음 4:16~21 참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후기 성도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권유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기 성도가 아니라 그저 후기의 죄인일 뿐입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면, 후기의 중도 포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기의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노력하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는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마음속의 의지”,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74쪽.



1952년 11월 1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



1977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스 리버트**와 결혼함.



심부전증 및 심장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심장 전문의**로 일함.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함. “몬슨 회장님은 온 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제 심정을 감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받음.



100



후기에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은 **100번째** 사람이 됨.

외동딸
애슐리를 둠.



유타 대학교에서 **문학 학사 학위** 및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음.



유타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교수**로 일함.



미국 메릴랜드주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레지던트 3년차일 때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음.



12살 때, 개조된 집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 바로 위 활동실에서 **폭죽**을 터뜨린 적이 있음.

모국어는 **스웨덴어**였음.

스웨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그의 가족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성탄절 이야기를 읽는 것을 **성탄절 전통**으로 삼음.



의사로 일하던 시절에 그는 **심적 고통이 복음을 통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들에게서 배움.



그는 11세에 **물문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음.

청년 성인

회개를 가르치는 비결

좀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회개를 가르치는
몇 가지 제언이 여기에 실려 있다.

40



청년 성인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42

예비 선교사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50

청소년

선교사 부름이 오면,
가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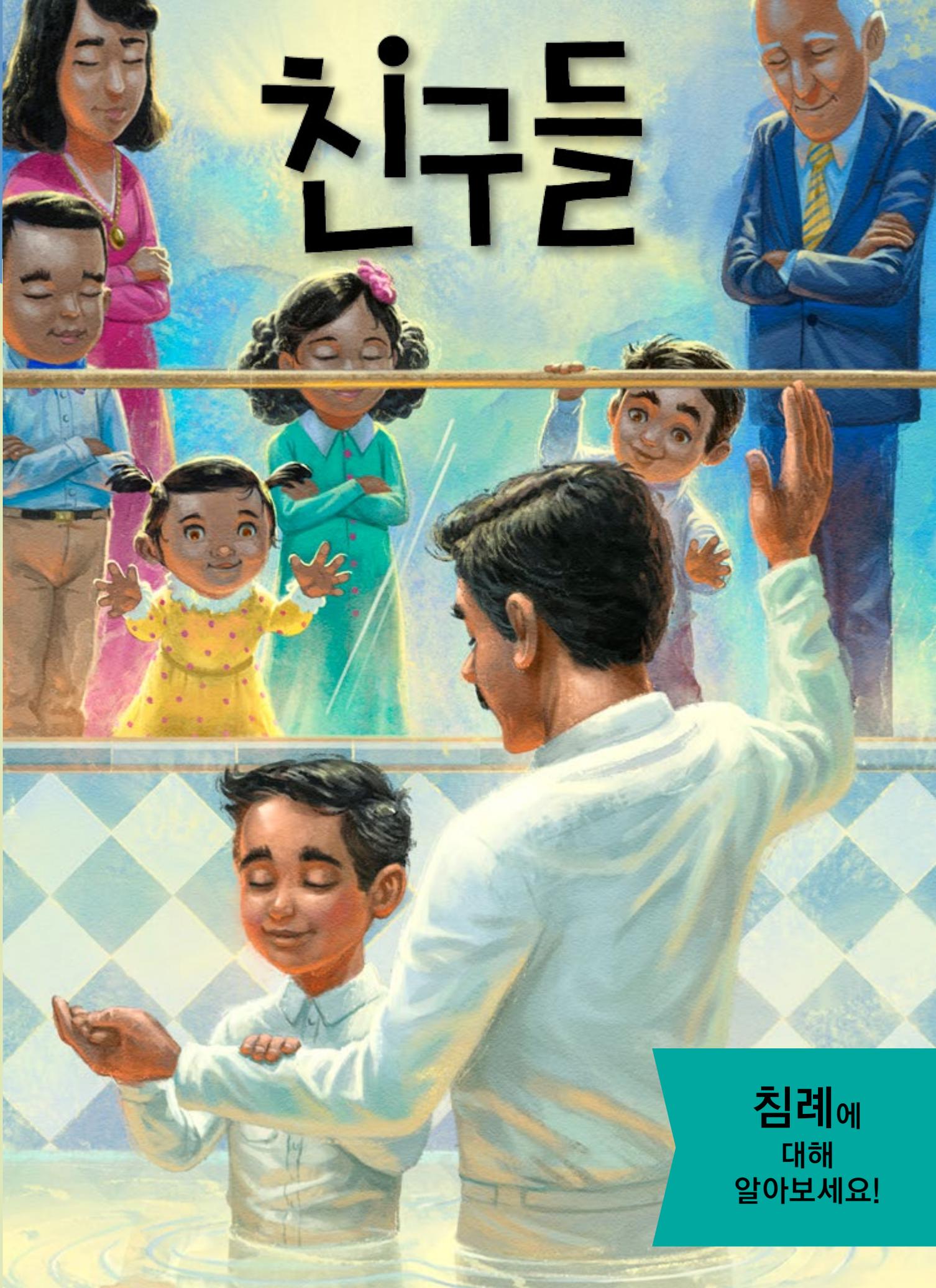
58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친구들



**침례에
대해
알아보세요!**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가 족 역사는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이며, 그들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인봉되어야만 내세에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 더 큰 행복과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2. 여러분의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 그 내용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3. 성전에 조상의 이름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조상들을 연결하십시오. 자신의 조상을 위해 여러분은 대리 칩례를 받거나, 여러분의 가족과 조상을 영원히 인봉되게 하는 등의 다른 의식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인 스텔라 옥스 여사는 증손주들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옥스 자매는 손주들이 증조할머니를 잘 알 수 있도록 “스텔라 할머니 파티”를 열었습니다. 또, 저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조상에 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

2018년 루츠테크 가족 발견의 날에 전한 말씀을 발췌하여 수정함.



권영 크리에이티브 하우스

침례 성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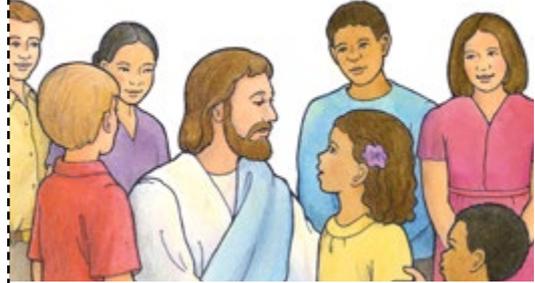
이 카드들을 오린 다음 섞으세요. 그런 다음, 돌아가며 카드의 짝을 맞추세요.
짝을 맞춘 후, 그 카드에 있는 침례 성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교리와 성약 20:77)

“서로의 짐을 져”
(모사이야서 18:8)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교리와 성약 2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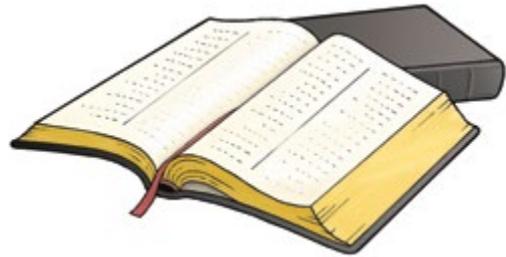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교리와 성약 20:77)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매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신으로
저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노력하겠다는 약속

태미 그린
실화에 근거함



“예수님이 하신 대로 침례받는 것 ...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Children’s Songbook, 104)

해 질 무렵에 타츠키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타츠키는 집 옆에 있는 작은 언덕을 뺨 하고 내려가는 걸 좋아했지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어요.

자전거를 멈췄을 때, 타츠키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야마다 자매님이 타츠키가 사는 아파트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안녕, 타츠키.” 야마다 자매님은 방긋 웃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너의 침례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단다.”

타츠키의 가족은 최근에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타츠키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았고, 특히나 침례를 받게 되어 기뻐했어요! 야마다 자매님과 타츠키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으로 가서 타츠키의 엄마와 만났어요.

“타츠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침례를 받기로 했더니 정말로 기뻐.” 야마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게 된단다. 넌 성약이 뭔지 아니?”

타츠키는 야마다 자매님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타츠키는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타츠키를 격려하는 듯한 환한 웃음을 지어 주셨어요.

“약속인가요?” 타츠키가 수줍게 되물었어요.

“맞아!” 야마다 자매님이 맞장구를 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성신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지 아니?”

타츠키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단서를 하나 줄게. 그 약속은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전에 듣는 성찬 기도문에 나와.” 야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드리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타츠키는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나서서 타츠키를 도와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기쁘게 말하는 걸 의미하지.”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야.”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타츠키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거야. 슬프거나 아픈 사람들도 도와주시겠지.” 야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치실 거야.”

타츠키는 맥이 풀렸어요. 타츠키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저는 침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물으셨어요.

“약속이 너무 많아요! 매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타츠키를 꼬옥 안아 주셨어요. “어제 유나가 올 때 네가 유나를 도와주었던 것 기억나?”

타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츠키는 슬퍼하는 여동생에게 재미있는 표정을 보여 주며 여동생이 다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함께 놀아주었어요.

“또, 지난 주에 사촌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도록 네가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나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다.”

타츠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타츠키는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이라면 타츠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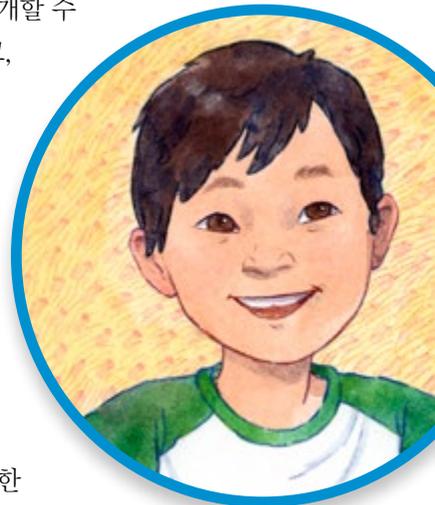
야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 그 말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더 잘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할 수 있지!”

타츠키는 걱정이 뚝 그쳤어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침례받고 싶어요!” 타츠키가 말했어요.

엄마와 야마다 자매님은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야마다 자매님이 타츠키에게 타츠키의 이름이 적힌 물문경을 주셨어요. 타츠키는 매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행복했어요. 타츠키는 어서 빨리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 과정의 일부예요! 어제 한 선택과 오늘 한 더 좋은 선택을 짝지어 선을 그어 보세요.

어제 한 선택

오늘 한 선택



1. 여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여동생을 놀렸어요.

2.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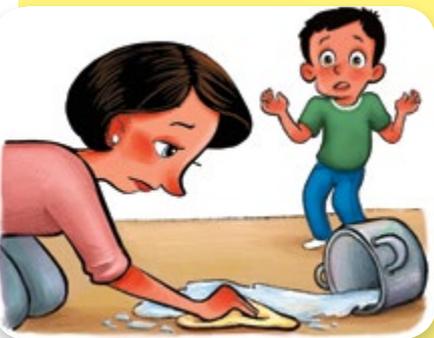
3.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4. 저를 놀리는 친구에게 못된 말을 했어요.



5. 냄비에 든 물이 옆질러진 것에 대해 엄마가 물어보셨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ㄱ. 엄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닦는 걸 도와드렸어요.

ㄴ. 학교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ㄷ. 그렇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축구 감독님께 사과드렸어요.

ㄹ.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재미있게 생긴 고양이 그림을 그려 주었어요.

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출처: 크리스찬 페이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배우고
성장하면서 다시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멕시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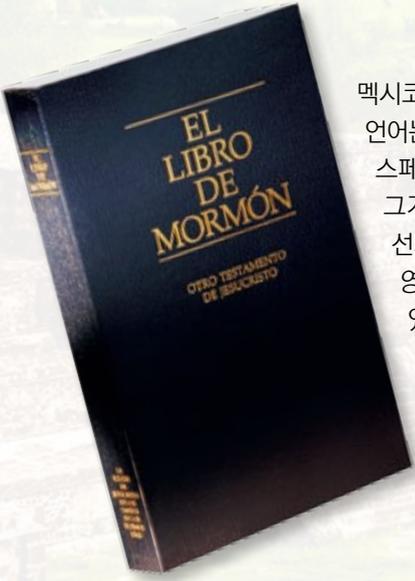


저는
마고예요.

저는
파올로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매달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멕시코로 떠나 볼까요!

멕시코는 북미에 있어요.
멕시코에는 1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약
150만 명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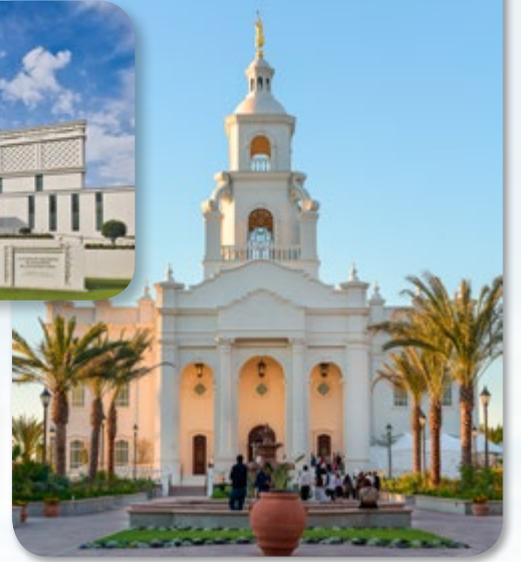


멕시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예요. 이것은
스페인어 물론경이에요.
그거 아세요? 스페인어로
선지자 엘마의 이름은
영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국기, 음식 사진: GETTY IMAGES; 삽화: 케이티 맥디

초콜릿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 멕시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초콜릿은
몰레 포블라노(mole
poblano)라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예요. 소스에는
고추, 견과류, 과일과
양념이 들어가요.



멕시코에는 13곳의 성전이 있어요. 이것은
멕시코시티와 티후아나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
사진이에요.

멕시코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휴일에 자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이 친구들은
과일과 사탕이 가득한
피냐타(piñata)를 치고
있네요!



“어느 날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슬펐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성신을 느꼈고, 행복해졌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요.”

아비 디, 7세, 멕시코 푸에블라



fútbol(풋볼: 축구)을 좋아하나요?
축구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베나민 디, 9세, 멕시코 푸에블라

우리와 멕시코를
여행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잉그리드의 특별한 생일 선물

머리사 드니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모로나이서 10:30)

“Estas son las mañanitas ...”

엄마의 노랫소리에 잉그리드는 잠에서 깬어요. 눈을 뜬 잉그리드는 엄마가 방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는 잉그리드의 생일마다 특별한 생일 노래를 불러 주세요.

“생일 축하해!”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파티 준비하자.”

잉그리드는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초콜릿 케이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 잉그리드는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밖에 서 있는 자카란다 나무에 보라빛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잉그리드가 엄마를 도와 소파를 방으로 옮겼고, 그 덕분에 거실에는 큰 공간이 생겼어요. 잉그리드는 엄마를 도와 케이크에 설탕을 바르고 양초 일곱 개도 꽂았어요. 이제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학교 친구들과 초등학교 친구들이 잉그리드의 집으로 모였어요. 모두 함께 놀이도 하고, 케이크도 먹었지요. 이제,



잉그리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잉그리드는 책 한 권과 호랑이 인형, 그리고 장식이 달린 팔찌를 받았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잉그리드는 엄마를 꼭 안아 드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놀랄 만한 특별 선물이 또 있어.” 엄마는 잉그리드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셨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엄마는 “그게 단서야.” 하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건 네가 찾아야 해.”

잉그리드는 서둘러 방으로 갔어요. 베개 밑을 들추었을 때, 잉그리드는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빨래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잉그리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세탁기를 열었어요. 거기 또 다른 쪽지가 있었지요!

잉그리드는 텔레비전 뒤, 제일 좋아하는 책 속, 욕실 깔개 밑 등에서 더 많은 단서들을 찾아냈어요. 마지막 단서는 옷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옷장 위에는 포장된 상자가 있었어요. 잉그리드의 키로는 닿지 않아서 상자는 엄마가 내려 주셨어요.





잉그리드는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곱게 개어 있는 흰 천과 큰 몰몬경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내년에는 네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가 침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선물이야.” 엄마는 흰 천을 매만지셨어요. “이

천으로 엄마는 네 침례복을 만들 거란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입을 책이야.” 엄마가 몰몬경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잉그리드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몰몬경을 읽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몰몬경을 펼치셨어요. “이것 봐. 글자가 크지? 이 정도면 조금 더 읽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몰몬경을 덮은 뒤에 잉그리드에게 건네셨어요.

잉그리드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겉표지를 만져 보았어요.

“몰몬경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약속하는데, 몰몬경을 읽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네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날 밤, 잉그리드는 몰몬경 첫 장을 읽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잉그리드는 경전 읽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몰몬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도 또 몰몬경을 읽었지요. 잉그리드는 매일 몰몬경을 읽었어요. 몇 주가 흐른 뒤에, 잉그리드는 몰몬경이 참된지 기도하기 위해 몰몬경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잉그리드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잉그리드는 잠시 기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마음속에 행복한 느낌이 샘솟는 게 느껴졌어요. 잉그리드는 이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약 1년 후, 잉그리드는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잉그리드는 이번 여덟 번째 생일에 무엇을 받게 되든지 자신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는 언제까지나 그 몰몬경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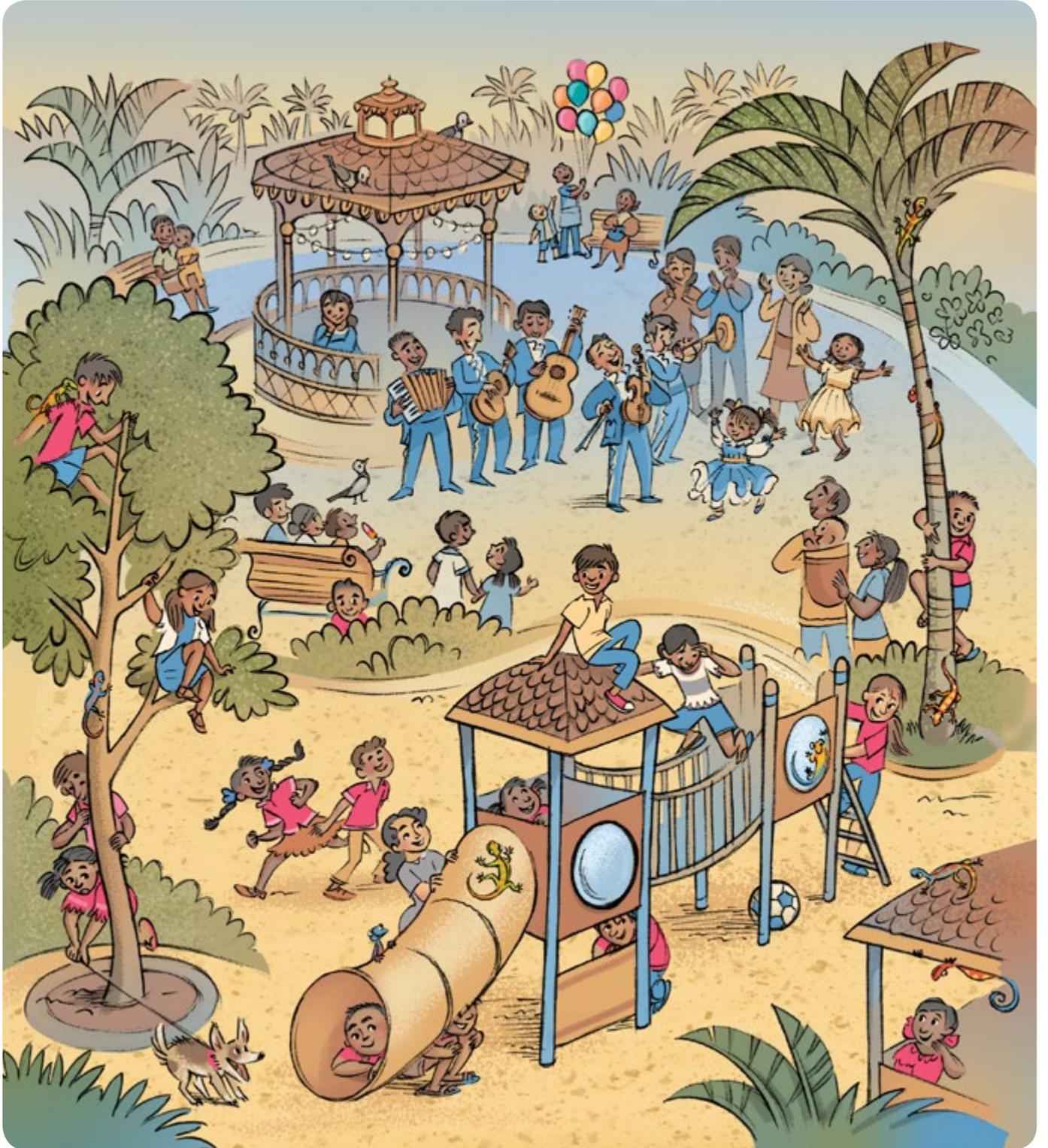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F8쪽으로 가서 멕시코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카밀라와 카를로스는 내일 카밀라의 침례식에 사촌들이 전부 오게 되어서 신이 났어요. 그들은 오늘 최고로 재미있는 *las escondidas* (숨바꼭질) 놀이를 하느라 바빠요!

10마리의 도마뱀을 모두 찾을 수 있나요? 카밀라와 카를로스, 그리고 10명의 사촌도 찾아보세요. 모두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엠, 8세, 바누아투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여덟 살이 되어서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뻐요.

하지만 집 앞에 있는 바다에서 침례받을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었어요. 파도가 언제 거칠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파도는 타고 놀기에는 재미있지만 그 속에서 침례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엄마와 함께 집 앞에 있는 바다가 어떨지 가 보았는데,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침례 날짜를 정하고 나자, 신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 섬 근처로 태풍이 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지부 회장님께 연락해서 침례식을 취소해야 했어요.

태풍 때문에 물에 잠긴 지역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는 있었어요. 지부 회장님은 제가 토요일에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날 파도가 정말 거칠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고 난 후, 모두 함께 해변을 걸어갔어요. 저는 사촌인 조시 형에게 침례를 부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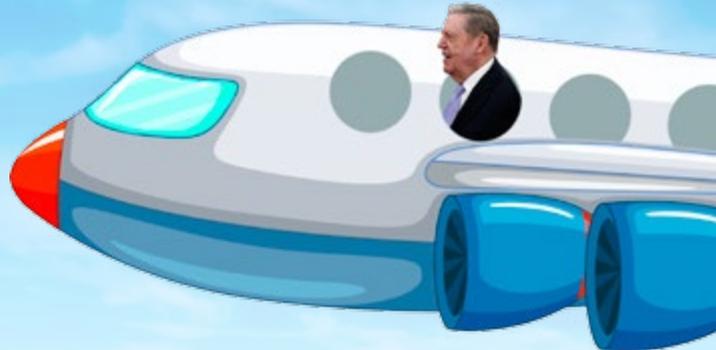
바다로 들어갈 때, 조시 형이 저를 파도 위로 들어올려 주어야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침례받는 동안에는 파도가 잠잠했어요. 조시 형이 침례 기도문을 말하는 동안 예수님이 저를 위해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다에서 걸어 나올 때는 바다가 다시 거칠어졌지만, 이미 제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여덟 살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

홀런드 장로의 긴 여정

제 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과 패트리샤 홀런드 자매님은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벨슨 회장님 부부와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그들은 8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선지자와 사도들 만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한 거의 모든 곳은 이미 성전이 있거나 곧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



1



그분들이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감람산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 구시가지지를 방문하셨습니다.

2



그다음에 그들은 곧 성전이 지어지게 될 아프리카의 **케냐**로 가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가족 역사 자료를 모아서 성전이 완공될 때 가지고 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성전에 가는 것만큼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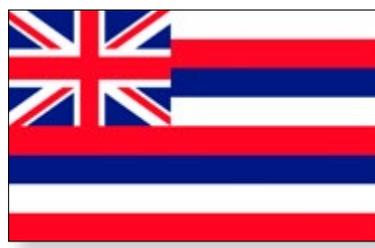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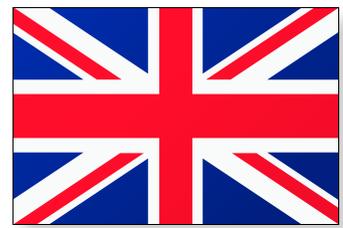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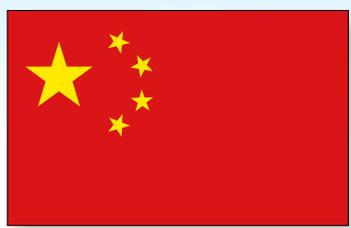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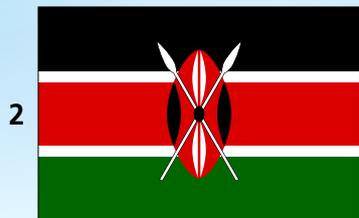
또, 벨슨 회장님과 홀런드 장로님은 **인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울 장소를 물색하셨대요. 그 성전은 십억 명 이상이 사는 인도의 첫 번째 성전이 되겠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홀런드 장로님이 이곳들을
모두 방문하셨대요. 각
나라(혹은 주)와 국기(깃발)를
연결해 보세요.

- 이스라엘
- 케냐
- 짐바브웨
- 인도
- 태국
- 중국
- 영국
- 하와이



8-하와이, 7-짐바브웨, 6-이스라엘, 5-영국, 4-인도, 3-중국, 2-케냐, 1-태국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리즐 로빈 셔트리프
실화에 근거함.

요요를 보며 결심했어요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영이 내게 말해요”
(Children’s Songbook, 106)

리아와 엄마가 거의 쇼핑을 다 마쳐 갈 즈음이었어요.
엄마는 옷을 보려고 발길을 멈추셨어요.
“잠깐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리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잠깐만”이
가끔은 20분을 뜻한 적도 있었거든요!

리아는 근처에서 장난감 진열장을 발견했어요. 리아는
색칠 공책도 펼쳐 보고, 공도 몇 번 튕겨 보았어요. 하지만
금방 심심해졌어요.

그때 무언가 반짝이고 둥근 것이 보여 그걸 꺼내
보았어요. 요요였어요! 오스카가 지난 주에 학교에 가져온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쉬는 시간에 오스카는 모두에게
멋진 요요 기술을 보여 주었어요. 그 기술의 이름은
“땅강아지”와 “세계일주”였어요. 리아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오스카는 거절했어요.

리아는 요요 줄
끝의 고리에 손가락을
끼웠어요. 그런 다음,
오스카가 한 것처럼
요요를 떨어뜨렸다가 줄을
당겨 올렸어요. 쿵! 소리를 내며
요요가 바닥을 쳤어요. 리아는 다시
해 봤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요요는 다시
리아의 손으로 튕겨져 올라왔어요! 그렇게 빨리
해낼 수 있다면, 아마 오스카가 했던 기술도 다 배울 수 있겠죠?

리아는 가격표를 보았어요. 리아는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집에 있는 저금통을 다 털어도 안 될 가격이었어요!

“거의 다 됐어, 리아.” 엄마가 리아를 부르셨어요.

리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요를 다시 내려놓으려는 찰나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요는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주머니에 살짝 넣어서 가져갈 수 있어! 가게 주인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야. 요요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도 연습할 수 있겠죠.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손에 있는 요요를 내려다보는데, 리아는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에도 땀이 났어요. 리아는 요요를
더 꼭 움켜잡았어요. 이 나쁜 기분은 뭐지? 리아는 그런 기분이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때, 침례받기 전에 아빠가 해 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침례를 받고 나면,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거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신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내리도록
도와주신다.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이야.”

“성신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리아가 물었어요.

“꼭 말로 하시는 것은 아니야.” 아빠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거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

식으로 오는 거지.”

“어떤 느낌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단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네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 성신이 너에게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느끼게
해 주실 거야.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다면, 성신이 너에게 경고를 해 주실
거고. 또, 네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성신이 너를 떠나실 거야. 그러면 너는 혼란스럽거나
불행한 기분을 느끼게 되겠지.”

리아는 요요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요요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리아는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성신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리아는 요요를 진열대 위에 다시 올려 두었어요. 그렇게
하자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리아는 엄마 옆으로 다시
갔어요.

“다 끝났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갈 준비 됐니?”

리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상점을 떠나면서 리아는 마치 햇빛처럼 밝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요는 얼마 동안은 재미있겠죠. 하지만 리아는
언제까지나 성신을 따르고 싶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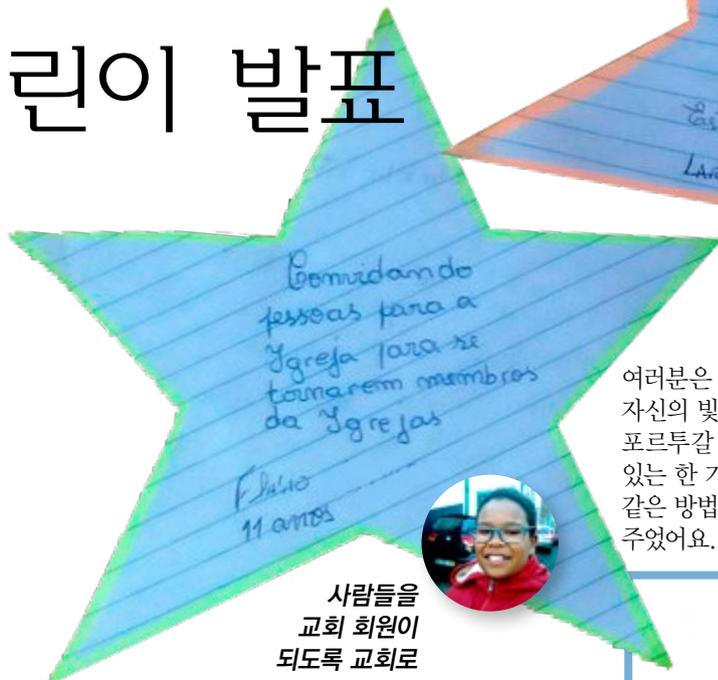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산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제가 잘 모르는 단어를 문제로 내셨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답지를 보았어요. 시험을 본 후에 저는 속이 안
좋았어요. 저는 엄마께 제가 다른 사람의 답지를
봤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가 받은 그 느낌을
성신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성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조나 제이, 8세, 미국 아이다호주

어린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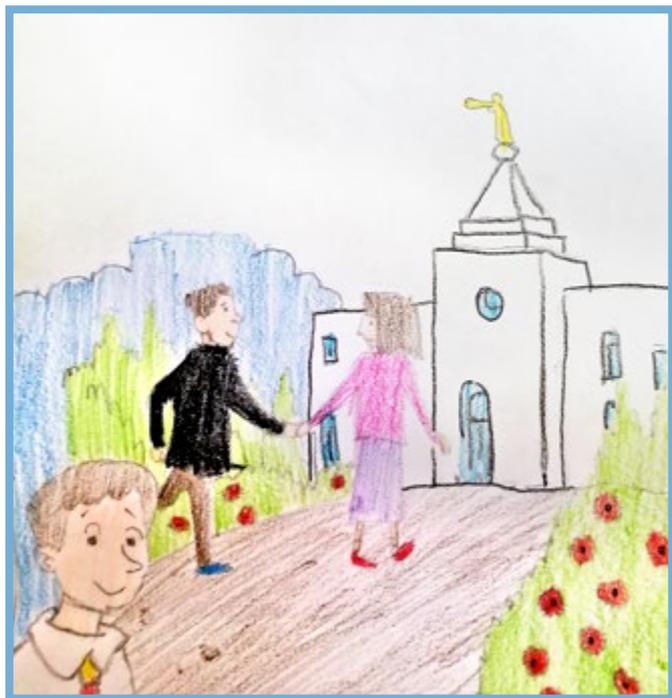


사람들을
교회 회원이
되도록 교회로
초대해요.
플라비우 엠, 11세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포르투갈 아조레스에
있는 한 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드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요.
라라 엠, 7세



저는 부모님과 형들과 페루
트루히요 성전에 갔어요.
저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 11세, 페루
라리베르타드



살로메 더블유, 6세, 캐나다 퀘벡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정의반은 물고기
입에서 메시지, 인용구, 경전 구절을
찾아내며 침례 성약을 공부했어요.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아버지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진료를 보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나오던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인가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아빠처럼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만큼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때,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 제 아들이 저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저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가르치던 선교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러셨듯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겠지. 내가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셨을 거야.’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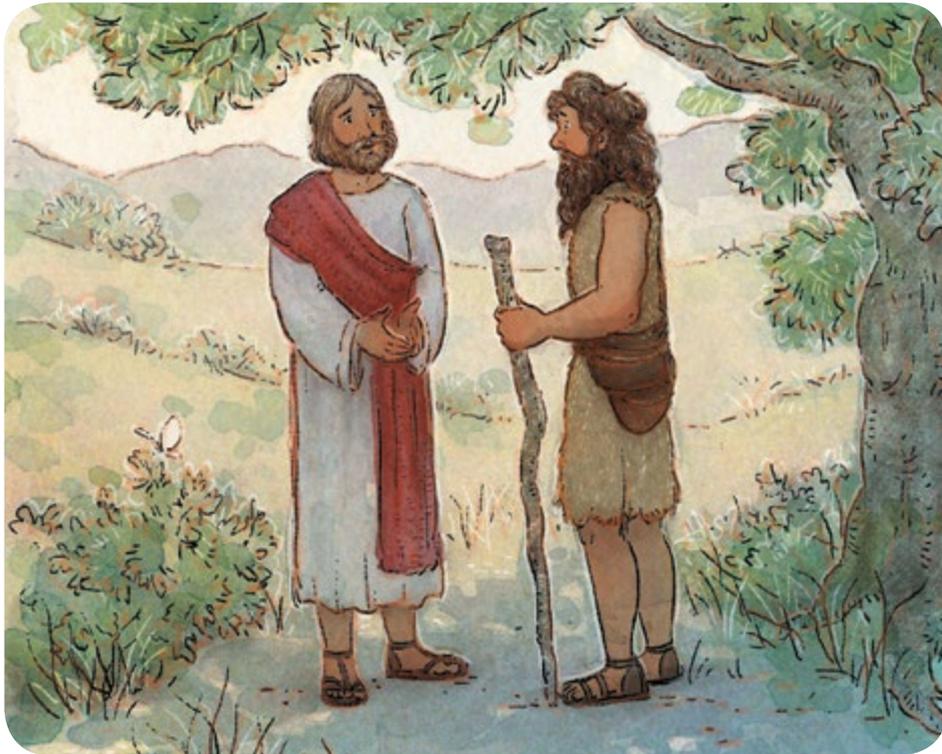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는 누군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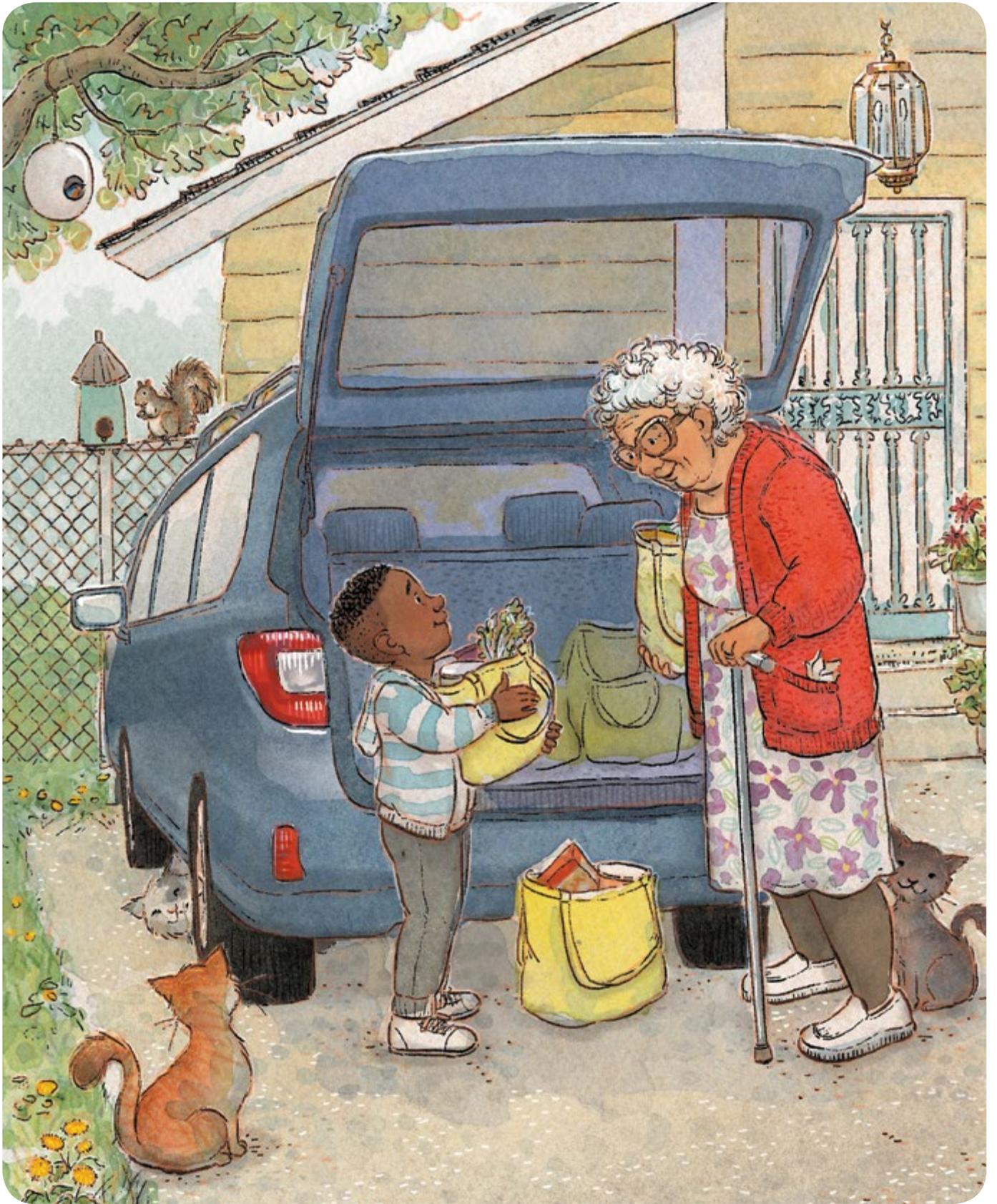
예수님은 자신의 육촌인 요한에게 침례를 부탁하셨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신권 권세가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왜 침례를 받고 싶으신 건지 여쭙어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다고 대답하셨지요.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성신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매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침례를 준비할 수 있어요. ●

예수님은 침례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올해에는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성인과 청소년들은 주일학교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똑같은 단원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매달 친구들에서 일요일마다 배우게 될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의 밤에서 사용하거나 자녀와 함께 읽어 보십시오.

- “침례 성약”(F3쪽)
- “노력하겠다는 약속”(F4쪽)
-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할 거예요”(F6쪽)
- “잉그리드의 특별한 생일 선물”(F10쪽)
- “요요를 내려놓으며 결심했어요”(F16쪽)
-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F20쪽)

가족이 함께 이런 이야기와 활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ew Friend

50 E. North Temple Stree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liahona@ldschurch.org

사랑을 전하며,
친구들

목 차

- F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 F3 침례 성약
- F4 노력하겠다는 약속
- F6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할 거예요
- F7 빛나는 아이디어 포스터: 누구나 실수를 해요
- F8 안녕하세요? 여기는 멕시코예요!
- F10 잉그리드의 특별한 생일 선물
- F12 찾아보세요!
- F13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 F14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홀랜드 장로의 긴 여정
- F16 요요를 보며 결심했어요
- F18 어린이 발표
- F19 아버지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 F20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 F23 색칠하기: 예수님은 침례받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책 안에서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브랜든 도먼